



BURBERRY

BURBERRY.COM

Style

조선일보

APRIL 2015 vol123



Amulette de Cartier

Cartier

FLÂNEUR FOREVER



에르메스 코리아
02 542 6622
Hermes.com

Publicis EtNove





- 14 **인구 쇼크는 호모 라보란스에게 절망일까, 희망일까?** 극히 낮은 출산율 때문에 고령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이런 인구구조가 디스토피아를 초래하기는 커녕 오히려 '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돼 흥미롭다.
- 16 **ALLURE OF WHITE** 정교한 무브먼트의 움직임까지 아름다움으로 승화하는, 여성을 위한 화이트 워치 컬렉션.
- 18 **SMALL WONDERS** 작지만 소중한 것, 드러내지 않아도 가치를 품고 있는 비밀. 바로 오직 여성을 위한 스몰 다이얼 워치의 매력이다.
- 20 **FOR HIM 7 ESSENTIAL KEYWORD** 모든 면에서 더 과감해진 2015 S/S 맨즈 컬렉션에서 주목해야 할 열 가지 트렌드.
- 22 **FOR HER 7 ESSENTIAL KEYWORD** 아슬아슬하고 아찔한 슬릿 스커트부터 대담하고 화려한 1970년대 히피 룩까지, 2015 S/S 시즌 여성 컬렉션의 7개 트렌드 키워드.
- 24 **SUPER NATURAL** 이번 시즌에는 마치 메이크업하지 않은 듯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가 트렌드다.
- 26 **ROMANTIC POETRY** 로맨틱한 향기를 품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바로, 봄의 살렘으로 가득한 지금이다.
- 28 **RUNNING MEN** 따뜻한 햇살에 불기운을 느끼며 걷기 좋은 계절이다. 당신의 취향을 자극할 뉴스나커즈.
- 30 **SPRING'S STANDARDS** 복고풍의 멋스러움과 함께 모던한 청량감을 보여주는 2015 S/S 시즌의 새로운 맨즈 룩 파레이드.
- 38 **SMART URBAN CASUAL** 스포츠 웨어도 충분히 세련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랑방스포츠.
- 40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훈) 기자들이 선택한 4월의 뷰티 아이템.
- 41 **MOIST DAYTIME** 아침부터 밤까지 물을 머금은 듯 촉촉한 피부를 지켜주기 위해 우리 앞에 나타난 피터라 미스트를 소개한다.
- 42 **AIRY TOUCH, FRESH SKIN** 전설적인 리쿠르 파운데이션 라인업을 갖춘 디올은 리쿠르 파운데이션에 대한 편견을 깨고 아주 가볍고 간단하며 패카지 역시 획기적인 디올스킨 누드 에어를 선보인다.
- 44 **THE COLOR OF MILAN** 독특한 컬러 팔레트와 볼륨이 느껴지는 스킨, 사랑스러운 디자인으로 세계를 매혹시킨 포렐라피의 누드, 마마노마, 사바아 컬렉션을 소개한다.
- 45 **REINVENT YOURSELF** 소장하고 싶은 브랜드, 국내 기계식 워치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예거 르쿨트르가 여성 워치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 46 **WHY ROYAL OAK?** 하이엔드 워치를 대표하는 것은 물론 컴플렉시케이션 시계의 신화로 불리는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의 대표 컬렉션인 로열 오크(Royal Oak). 세계 최초의 럭셔리 스포츠 워치, 혁명적인 디자인, 그리고 현재까지 전 세계 스포츠 워치 시장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오데마 피게의 스토리에 대하여.
- 48 **JOYFUL BALI** 발리에 관심이 있다면 최근 훨씬 더 쾌적하게 새 단장한 클럽메드 발리를 기억할 민하다.

Style 조선일보

Issue.123 April 2015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김지혜 jihy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종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사법 그래픽스
 인쇄 | 타라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베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훈〉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훈)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훈)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FENDI.COM

FENDI

Jewel GOLDEN AGE

금이라는 단 하나의 소재만으로도 브랜드의 모든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세공의 가치를 극대화한 골드 주얼리 컬렉션.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최고의 금 세공력을 보유한 부쉐론의 고승도치 모티브의 한스 핑크 골드 펜던트, 가격 가장 부쉐론, 모던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티파니 T 스퀘어 링 1백만원대 티파니, 오픈워크 방식으로 장미 꽃잎을 표현한 피아제 로즈 네크리스, 6백70만원 피아제, 옐로 골드로 유려하게 깃털을 표현한 톨롬 링 7백만원대 사셀 와인 주얼리, 자물쇠 모티브로 사랑의 구슬을 표현한 아시드렛 네크리스, 3백60만원대 타사키, 브랜드를 대표하는 나선형 모티브의 옐로 골드 비, 제로인 컬렉션, 2백만원대 볼가리, 에디터 배미진



DRAMATIC LASHES

허리 라인을 날씬하게 잡아주는 코르셋처럼 촉촉 차진 속눈썹도 잡아줄 필요가 있다. 한 번의 터치만으로 멋진 보아면 눈에 활을 실어주는 마스카라가 주안공, 볼륨과 워터프루프 기능을 갖추어 짧고 빈약한 속눈썹도 인형처럼 드라마틱하게 변신한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짙은 블랙 컬러의 피그먼트가 속눈썹을 더욱 길어 보이게 만드는 '나스 라저 덴 라이프 렌스닝 마스카라'는 일회용 브러시가 마스카라 액이 통치지 않도록 도와준다(6g 3만6천원). 속눈썹에 헤어 물을 만 것 같은 효과를 주는 '베네딕트 톨러 레시'는 속눈썹이 올라간 만큼 여자의 자신감을 높여준다(8.5g 3만6천원). 마스카라 텍스처가 무겁다면 제이무리 부리로 속눈썹을 예쁘게 올려준다 해도 곤란 차지가 쉽다. '조르지오 아르mani 블랙 엑스터시'는 가벼운 텍스처로 발림성을 높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듯 자연스러운 눈길 특징이다(10ml 4만2천원). 투명한 액체 코팅 풀러가 하루 종일 메이크업이 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인생로망 마스카라 볼륨 에메 포 실 워터프루프'는 알로에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속눈썹을 부드럽게 감싸며 자연스러운 컬링을 연출한다(7.5ml 4만원). 백조의 목처럼 굽은 독특한 디자인의 마스카라 스틱이 인공 꿀 잘리지 않는 속눈썹까지 훌륭하게 채워주는 '링콜 그라디오즈 스머지프루프 마스카라'는 워터프루프 기능을 더해 번지지 않고 깔끔한 눈매를 유지해준다(10g 4만원). 여러 번 덧칠해도 뭉치지 않는 '맥 오트 & 노트 워터프루프 레쉬'는 속눈썹 뿌리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코팅해 눈물을 흘려도 쉽게 번지지 않고, 운동 중 흐르는 땀에도 걱정 없다(8g 3만원). 아이리언-와 아이세도 없이도 관능적인 아이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겔랑 액시 레쉬 소 볼륨 마스카라'만 있다면. 뛰어난 탄성과 완벽한 간격으로 설계한 브러시가 마스카라가 과도하게 발리는 것을 방지하여 아찔한 속눈썹을 연출해 준다(8.5ml 4만5천원). 에디터 김자혜

Fashion RETRO SNEAKERS

유행은 들고 돈다는 말이 부쩍 실감 나는 요즘이다. 1990년대 열풍을 넘어 수십 수준으로까지 이어졌던 아디다스 슈퍼스타, 나이키 조던과 영크, 캔버스 캔버스 운동화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품질 시테로 이어질 만큼 그 인기가 부활했으니 말이다. 게다가 럭셔리 하우스에서조차도 이 복고풍 운동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스니커즈를 대거 선보이고 있으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 트렌드가 그저 반가울 따름!

(왼쪽부터 차례대로) 깔끔한 약가죽 패치 데일리의 스니커즈 7만5천원 구찌, 탄력감 있는 기능성 일장이 돋보이는 에시 데일 일의 약가죽 스프링 플레이드 운동화 9만9천원 아디다스X리 오웬스, 에시 가족 스타일 다이애 패튼이 럭셔리한 트레일 블레이저 하이 플 스키즈 1백30만원대 루이비통, 스타트 정성과 선명한 하늘색 라인이 포인트인 숄어지 스니커즈 80만원 발렌티노 by 룬, 다시 열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레드 스트라피오 패튼의 슈퍼스타 운동화 10만9천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에디터 권유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Design BRITISH LIFESTYLE SHOWCASE 2015

혁신과 전통의 참신한 조화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창조경제의 대표적 인 플모델 국가인 영국에서 날아온 라이프스타일 상품들을 반색할 듯 하다. 최근 영국대사관과 주한 영국무역투자청은 투철한 장인 정신과 혁신적인 디자인이 반영된 23개의 대체로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소개하는 쇼 케이스를 열었다. 보습 효과가 탁월한 데다 민감성 피부에도 잘 맞아 이미 국내에서도 입소문이 많이 난 모이범부터 사랑스러운 분위기의 스킨케어 감성이 돋보이는 액세서리 브랜드 로즈앤로즈, 각종 상을 휩쓴 프리미엄 올리브 오일 브랜드 이블라기, 동물 등을 모티브로 삼은 디자인으로 독특한 개성을 발산하는 패션 주얼리 브랜드 시어먼 해리스까지 패션, 뷰티, 식음료, 리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브랜드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 깜찍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이 매력적인 리빙 브랜드 호콜로, 그리고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비가 사용해 화제가 된 고급 디자인이 빛 발광하자, 애견 액세서리 브랜드 러브미도그도 흥미롭다. 앤드루 달글레이시 주한 영국대사관 부대사자 주한 영국무역투자청 닥터는 "영국 기업들에 한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역동적인 시장"이라며 "한국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과 세련된 스타일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서로 공유할 점이 많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창의적인 자산을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기회를 엿보고 있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문의 02-3210-5500 에디터 고성연



Drink 프리미엄 위스키의 감각적인 디자인 향연

패키징 디자인의 미학이 느껴지는 프리미엄 위스키(spirits) 산제품들이 눈길을 끈다. 나른한 봄날에 스페셜 에디션의 입맛과 후각만 사로잡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만족도가 높은 제품들이다. 꾸준하면서도 강도 높은 사랑을 듬뿍 받아 로얄 살루트도 모던한 감각을 더한 새로운 보틀 디자인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브랜드의 트레이드마크인 사자 형상과 대표 연기 프레임의 보틀과 하드캐이스 연면에 바쳐왔는데, 브랜드의 상징성을 더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한다. 유선형 디자인과 시크처 색상인 은은한 금빛이 감도는 견고한 하드케이스에서는 최소 21년 이상 숙성된 원액부터 도자기 병까지도 가장 귀한 재료만 사용한다는 로얄살루트의 고급스러운 미학이 잘 느껴진다. 병을 감싸는 벨벳 파우치는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등 3가지 색상이 나온다. 한국인의 사랑을 유독 많이 받아온 싱글 몰트위스키 맥칼런은 세계적인 패션 시즌즈가 마리오 테스타노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한정판 '마스터 오브 포토그라피 5'를 내놓았다. 이 시리즈 최초로 아시안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 제품 패키지는 MOP5 위스키 1병(750ml), 각각 다른 디자인의 마이어저 6병, 마리오 테스타노 작품 사진으로 구성됐는데, 1천 병의 한정판 중 한국에서는 5병만 판매된다. 테스티노가 직접 옷칠한 검은 상자는 고유 번호를 새겼다. 또 친근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브랜드 이미지를 자닌 아이리시 위스키 브랜드 제인슨의 상큼한 디자인도 눈여겨볼 만하다. 세련된 녹색빛이 감도는 병이 뻗어 있는 이 위스키는 온더룩 스타일뿐만 아니라 과일 주스나 소다수와 혼합하는 칵테일자가 선호되는 대체로운 매력의 제품이기도 하다. 에디터 고성연



+822 3443 2323 prada.com

PRADA

Ethan Hawke
New York, November 2014



기하학적 패턴이 돋보이는 사피아노 장지갑 70만원대 프라다.

모노그램 캔버스 소재의 장이시 템플로 휴대성을 높인 사플로트 신글라스 80만원대 루이 비통.

스타이브 양말 50만원대 마크앤보나.

붉은색 코랄 스톤, 패브릭, 머린 무드가 느껴지는 빈티지한 참 장식이 에스노한 유니섹스 네크리스 가격 미정 구찌.

로고 패턴을 감각적으로 재해석한 화이트 점퍼 69만원 켄조.

for her Selection

편안한 착용감, 기능성 소재는 두말할 필요 없거니와 무엇보다 예쁘고 스타일리시하다.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게 만드는 아웃도어 웨어의 변신, *photographed by kim do hyun*

트위드 소재와 메탈릭한 골드 컬러가 조화를 이루는 스니커즈 59만원 엘레나 아이치 by 디마프.

세련된 컬러감이 매력적인 요가 매트 9만9천원 아디다스 by 스텔라 매카트니.

배드민턴을 할 당시엔 벨트로 홀로 지기 위해 만든 골프 양갑 39,800원 엘. 약.

레드 컬러 히트 색, 35x17cm, 400g정량 빈폴 아웃도어.

'golf or die'라는 워트 있는 슬로건이 새겨진 컬러 골프공. 3개입 2만8천원 마크앤보나.

블루와 핑크, 블랙 컬러로 포인트를 준 워터 디자인의 골프화 39만8천원 슈클마보니.

작지만 풍부한 음향을 자랑하는 스킨다나 마이크로 포드 블루투스 스피커 42만원 소비코AV.

부드러운 터치 소재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카누용 선아우터 62만원대 타이리시드.

스포츠한 디자인에 프릴을 더해 여성미를 강조한 원피스 가격 미정 페이.

- 켄조 02-6905-3506
- 프라다 02-3218-5331
- 루이 비통 02-3432-1854
- 마크앤보나 02-310-1537
- 구찌 1577-1921
- 디마프 02-3213-2381
- 아디다스 080-022-7981
- 빈폴 아웃도어 02-3476-8876
- 소비코AV 02-2106-2981
- 슈클마보니 02-511-1868
- 약 02-3677-8831
- 분더샵 02-3444-3300
- 타이틀리스트 02-3014-3800
- 페이 02-310-1678

옐로 라인이 포인트인 캔버스 소재 캐주얼 백. 29x45cm, 가격 미정 마르니 by 분더샵.

Tods Korea Inc. 02-3448-8201





for him
Selection

진정한 패션 고수라면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만족시키는 아웃도어 룩을 일상에서도 멋지게 스타일링하는 법이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뽀얀 태양을 연상케 하는 미러 렌즈 선글라스 28만원
마크 바이 마크 제이컵스 by 사필로.

카무플라주 패턴의 팔꿈치 보호 58000원
마르코니노.

에어 메시 소재로 만들어 시원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선타이저 7만8천원
타이틀리스트.

개성 있는 기미줄 패턴의 면 피케 티셔츠
가격 미정 엘로드.

자방시 02-517-7560
피에르 아르디 02-310-5052
디스퀘어드 02-6905-3678
소비코AV 02-2106-2981
랑방스프츠 02-3438-6252
사필로 02-2017-3765
마크엔로나 02-310-1537
타이틀리스트 02-3014-3800
약-엘로드 02-3677-8831
토즈 02-3438-6008
랑방 울모 02-6905-3496
빈폴 아웃도어 02-3476-8876
에거 로콜트르 02-6905-3998
플체앵가버나 02-3444-0077

숫자 17과 에스닉한 패턴이 포인트인 카드 홀더 목걸이 5만원 자방시.

영문 타이포그래피가 강렬한 네온 컬러 가죽 장갑 가격 미정 디스퀘어드.

편안한 실루엣과 감각적인 패턴이 조화를 이루는 스트링 팬츠 38만원
랑방스프츠.

사파리 프린트를 다한 헤드셋 7만9천원
어반어스 서플러스 레오 by 소비코AV.

네오트렌드 스타일의 올림핀 스니커즈 가격 미정 랑방 울모.

티타늄보다 더 가볍고 견고한 강화 싸인 소재를 사용해 강인함이 느껴지는 답 씨 크로노그래퍼 싸인 위치 2천2백만원대 에거 로콜트르.

악마 요티반의 바늘이 재치 있는 소가죽 벨트 14만원 약.

StarWalker Urban Speed
and Hugh Jackman

스타워커 어반 스피드와 휴 잭맨

Crafted for New Heights
Meticulously crafted with a body made of black precious resin, PVD-coated metal fittings and a hand-lacquered red stripe on the clip - the Montblanc StarWalker Urban Speed ballpoint pen is bound to become a true lifetime companion. Visit Montblanc.com





인구 쇼크는 호모 라보란스에게 절망일까, 희망일까?

후진적인 모습을 기억하기란 힘든 나라지만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1950년대 후반만 해도 대부분 먼저 거둔 비포장도로로 뒤덮여 있었다고 한다. 일본의 경제성장에는 당연히 여러 동인이 있지만 1964년 도쿄올림픽이 큰 계기로 작용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기 반한 주식 투자의 틀을 제시하는 자산 운용 전문가 밥 프뢰리히 박사는 도쿄올림픽 이후 일본이 무려 20년간 성장 가도를 달렸다면 2008년 베이징올림픽이 중국에 바로 그러한 전환점이 되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IMF 사태 같은 성장통도 겪긴 했지만 올해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88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보면 1인당 GDP가 10배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셈이다. 물론 스포츠 이벤트를 꼭 경제 효과와 이미지 제고를 노린 국가나 도시 차원의 프로젝트로만 바라봐도 안 되겠지만, 인천아시아경기이나 평창동계올림픽을 둘러싼 최근 잡음들만 봐도 이제는 낙관론은 커녕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는 의견에 더 무게가 실린다. 심지어 매머드급 이벤트 자체의 경제 효과란 건 원래부터 없고, 단지 성장 잠재력이 터지기 직전인 나라들이 그런 국가적 행사를 기점으로 더 신나게 질주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논리도 설득력 있게 개진되고 있다. 즉, 타이밍이 좋았다는 얘기다. 또 당시에는 인구조상 보다 '젊은' 나라들이기도 했다. 어쨌거나 2000년대 초·중반부터 중국이 그런 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원자재, IT,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투자 초점을 맞추라는 프뢰리히 같은 전문가의 예측을 따랐다면(물론 '종목의 적중률은 다른 문제다'), 그리고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과 행동을 취했다면 적어도 큰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인구 변동'이라는 큰 그림 없이 선별된 미래를 내다보지 말라는 그의 지당한 조언이 요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대개 현 시점의 인구 변동이라고 하면 인구 규모가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로 치달으며, 저출산이 문제라는 그림을 상식적으로 떠올리지만, 이런 전망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단지 투자 차원이 아니라 인류와 경제, 노동의 문제를 좌우시키는 담론이라 21세기판 뉘스는쟁을 방불케 한다.

뉘스 논쟁은 시점이 대폭 늦춰진 것일 뿐, 여전히 유효하다(?)
 “1900년에 지구 인구는 16억 명이었다. 20세기가 흐르는 동안 세계 인구는 2배로 늘어났다 가, 다시 2배로 늘어났다. 우리 별에 공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다 채운 상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명한 미국 저널리스트이자 학자인 앨런 와이즈먼은 〈인구 쇼크〉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는 16억 명이었던 세계 인구가 2014년 72억 명, 2082년에

는 1백억 명을 돌파할 수 있다면서 인구 폭발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내달리고 있으며, 지구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18세기 말 인구 증가세와 자원 고갈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재앙을 맞이하리라고 주장한 영국 학자 맬서스의 경고는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났을 뿐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탐구욕 왕성한 저널리스트답게 전 세계 21개국을 돌아다니며 인구 문제의 현실과 대안을 속속들이 파악한 와이즈먼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구가 대규모로 유지되기를 바라며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진짜 이유는 딴 데 있다고 말한다.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이들이 많을수록, 노동력을 더 값싸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 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자연이 우리를 조정하리라는' 따끔한 경고도 곁들였다. 그러나 우리 중 상당수는 인류의 먼 미래를 심대한 차원에서 걱정하기보다는 조국이나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가까운 앞날을 우려하기에 비하면, 그보다도 당장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맞닥뜨린 상황을 헤쳐나가기에 급급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도 눈앞에 닥친 1백 세 시대에 어떻게 버티나갈 것인지, 그토록 열심히 국민연금을 부어왔지만 정작 은퇴하면 누가 그 재원을 채워줄 것인지, 조금 더 나아가면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에 후세대의 경쟁력이 심히 도태되지 않을지를 걱정하는, 지극히 현실적이면서 다분히 자기 본위적이기도 한 염려가 깔려 있어서일 테고 말이다.

‘인구 절벽’은 정말로 노동 경쟁력을 갉아먹을까?
 한국도 고령 사회 초기에 들어선지라 이런 사안은 먼 일이 아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이면 이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인 '고령화 비율'이 14%를 돌파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절벽(demographic cliff)'이 머잖아 닥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2020년은 부양 부담이 낮은 마지막 인구 보너스 기간”이라고 밝혔다. 그런 와중에 투자 전문가인 해리 렌트는 《2018 인구 절벽이 온다》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에서 출산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71년생의 소비가 정점을 이루는 2018년을 기점으로 수십년간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라면서 대대적인 디스플레이션이 예상되므로 여러 차원의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한다. 굳이 렌트의 전망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인구 소멸 1호 국가로 지명될 정도로 출산율이 극히 낮은 편이다(1.2명 수준).

은퇴 계획은 커녕 생산 가능 인구다운 사회 진출과 안착을 버거워하는 2030세대가 연애·결혼·출신을 포기한 '삼포 세대'로 불리는 한국의 암울한 현실에서 인구 변화는 어느 방향으로 해석되고, 흘러가야 할까? 경제 규제 같은 아반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자발적인 '인구 억제'를 외치는 와이즈먼이나 노동 경쟁력을 위한 '출산 장려'를 강조하는 렌트나 한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국에 대한 언급을 아예 빼놓지는 않았다. 평균 출산율이 최저 수준인 한국과 세계적인 인구 폭발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와이즈먼은 인구가 줄어들어 국가 GDP가 감소하더라도 국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인구통계학적 운명은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장 없는 변형을 피해야 하는 일본의 예를 든다. 이 같은 설명을 뒷받침하는 일본 정책연구대학원 명예 교수인 마쓰타니 아키히코의 얘기는 꽤나 흥미롭다.

성장 없는 변형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우리는 국내총생산을 늘리는 데 강박적으로 집착해왔어요. 하지만 GDP는 인구가 줄어드는 경제에서 생활수준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적으니 총생산량도 줄어들겠지만 1인당 생산성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1인당으로 따지면 변하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마쓰타니는 인구 감소로 개인의 삶이 더 나빠질 이유는 없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는 자방 분산의 기회, 노동자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낙관한다. 처음에는 기업이 임금을 낮추거나 노동자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려 하겠지만 노동자가 더 귀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기업도 있는 직원이 떠나지 않기를 바르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이 지점에서 이후 노동자라는 대안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반박한다. 대규모 이민자에 의한 사회문제를 떠나더라도 2030년까지 노동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이민자 2천만명만 받아들이어야 할 텐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독일은 또 하나의 예로 꼽힌다. 와이즈먼은 독일 경제가 새천년 초기의 10년에 걸친 경기 부진과 침체에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인구가 줄어든 시점이었지만 2010년 독일은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보였음을 지적했다. 또 공산주의의 해체로 혼란에 빠진 탓에 일본보다도 먼저 인구가 급감했으나 21세기 들어 경제가 성장한 러시아의 경우에는 2009년에 오히려 인구가 15년 만에 증가했는데, 이는 출산율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축적된 나라에서 오는 이민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통계도 제시된다. 버몬트대의 경제학자 조슈아 팔리의 논점은 흥미롭다. 그는 “경제의 상위 10%가 이자를 받는 이들이

고 나머지 90%는 이자를 내는 이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자 지불액은 본질적으로 하위 90%에서 상위 10%로 부를 이전하는 수단”이라며 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돈을 만들어낼 권리를 가지게 함으로써 안정된 생태계를 구축하면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가 보다 순조롭고 부의 혜택도 골고루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다. 인구 감소와 부의 재분배는 인류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동전의 새로운 양면이라는 것이다.

어차피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면...
 팔리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것이다. 물론 은행이 누리는 권리를 없애지는 팔리의 주장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이상에 가까운 모습을 지닌 예도 있긴 하다. 인구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높고, 다수가 골고루 부를 부리는 일부 북유럽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을 국가 경쟁력을 채워줄 '노동력'으로만 보고 출산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아주 부러운 극소수의 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노동력까지 달리면 경제성장이 멈출뿐더러 고령 인구를 부양할 후세대가 없어서 결국에는 모두가 빈곤의 늪에 빠지지 않았는 걱정이 들 때도 있다. 그러므로 나라가 못 살면 내 뚫고 줄어들므로 조금은 부유층이 더 가져가더라도 그나마 '상향 평준화'가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 역시 꽤 일리 있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구의 인구는 여전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한국은 인구 절벽을 향해 가는 현실을 놓고 회색빛 전망만 쏟아지던 차에, 마냥 장밋빛 전망은 아닐지라도 인구 감소를 낙관하는 희망론은 꽤 반갑게 들리는 측면이 있다. 어차피 인구 변동은 큰 동인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일 거라는 전망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일본이나 싱가포르만 보더라도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려고 온갖 당근책을 제공해도 별 효과가 없었다. 해리 렌트를 비롯해 상당수 학자들은 한국이 일본에 22년 후행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여지는 여러모로 더 많은 셈이다. 특정 국가의 인구가 적든 많은 성장세를 타든 감소세를 타든 인류 전체의 기대 수명은 높아질 것이며, 로봇으로 노동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인간의 두뇌는 삶의 질을 그에 맞게 향상시키고 디자인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다. 게다가 어떻게든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지향하는 게 '행복'을 원하는 인간의 본능이지 않은가. 어느 미국 작가의 말처럼 "비용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삶은 여전히 인기 있을 것"이니까. 단지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국가가 것처럼 인구 쇼크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롤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IS** | 에디터 **고성연**

allure of White

세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화이트 컬러는 순수함과 화려함, 따뜻함을 모두 지닌 가장 여성스러운 컬러다. 정교한 무브먼트의 움직임까지 아름다움으로 승화하는, 여성을 위한 화이트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위부터 아래로) 샤넬 J12-G 10 하이테크 세라믹 케이스에 나토 스트랩을 연상케 하는 스포티한 밴드를 매치해 새로운 J12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컬렉션. 여성스러움과 일러트리 특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33mm 사이즈의 다이얼, 스트랩까지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더해 독특하게 완성했다. 샤넬 J12의 확장 버전이기에 더욱 매력적이다. 1천7백만원대, 문의 02-3442-0962

까르띠에 마더오브밀 워치 시계의 복잡성을 표현하는 태입 모터로 완성한 보석을 최상급의 마더오브밀 다이얼에 올려 환상적인 디자인으로 완성한 주얼리 워치. 다이아몬드를 사용해 기계적인 요소를 여성스럽게 표현했다. 가격 미정, 문의 1566-7277

오메가 레이다메틱 여성용 기계식 워치를 대중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오메가워치 대표 여성 컬렉션. 34mm 다이얼에 코-엑스퍼트 무브먼트 8520를 장착했고, 숫자를 표시하는 인덱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케이스 옆면에는 물결을 환상화한 웨이브 패턴을 새겼고, 케이스에는 다이아몬드를 스노 세팅해 더욱 화려하다. 1천8백만원대, 문의 02-511-5797

워털로 박랭 골드 화이트 다이아몬드 여성을 위한 38mm 사이즈 케이스에 1백26개, 총 0.87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한 느낌을 주는 워치. 착용감이 편안한 화이트 레더 스트랩은 클래식한 세라믹 스트랩처럼 보일 정도로 혁신하게 완성했다. 18K 레드 골드에 대한 완벽한 파나시 화이트 컬러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3천만원대, 문의 02-2118-6208

불가리 세르펜트 스피가 투보가스 풍요, 자혜, 불멸과 장수를 상징하는 뱀을 모티브로 팔찌처럼 착용할 수 있는 컬렉션. 스틸과 화이트 세라믹을 기공하는 독특한 기법을 활용했다. 손목에 자연스럽게 감기는 뛰어난 착용감이 특징이다. 7백만원대, 문의 02-2056-0172

올리브 나르덴 마린 레이디 다이버 흔치 않은 여성용 다이버 워치. 화이트 라버 스트랩과 다이얼을 수놓은 다이아몬드는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지만, 2시 방향의 달 모양 애플릿은 강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100m 방수 기능, 42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담은 셀프와인딩 칼리버 UN-815를 장착했다. 1천8백70만원, 문의 02-3213-2248 에 디터 배마진



www.brunellocucinelli.com



BRUNELLO CUCINELLI

브루넬로 쿠치넬리 청담 전문점 /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센텀시티점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대구점, 부산점 / 갤러리아 EAST /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대구점 / AK플라자 분당점

small Wonders

작지만 소중한 것, 드러내지 않아도 가치를 품고 있는
비밀. 바로 오직 여성을 위한 스몰 다이얼 워치의 매력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 까르띠에 탱크 아메리칸 미니 주얼리 워치 단 한 번에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핑크 스트랩의 탱크 미니 워치. 날카로운 부드러움, 정직한 직선과 클래식한 로마자가 어우러져 기묘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길이 27mm, 넓이 15.2mm의 작은 다이얼 안에서 부차적인 시간을 표시하는 블루 컬러 핸즈가 더욱 매력적이다. 다이아몬드 세팅이 화려하고 우아한 맛을 더한다. 2천5백만원대, 문의 1566-7277

블가리 비, 제로원 워치 핑크 골드 소재로 완성한 23mm의 작은 케이스 사이에 화이트 방글 디자인을 매치해 트렌디한 엔트리 워치로 재조인. 케이스 배젤에 블가리 블가리 더블 로고가 새겨져 있어 브랜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시간을 맞추는 크라운을 생략하고 백 케이스에 푸시 버튼을 장착해 깔끔하다. 8백만원대, 문의 02-2056-0172

샤넬 화인 주얼리 에투알 필라트 다이얼에 총 27개에 달하는 1백25개의 다이아몬드를 다양한 형태로 세팅한 시크릿 워치. 샤넬 주얼리의 상징인 유성, 코메트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하이 주얼리 워치다. 극도로 여성스러운 디자인을 원하는 여성에게 제격이다. 5천만원대, 문의 02-3442-0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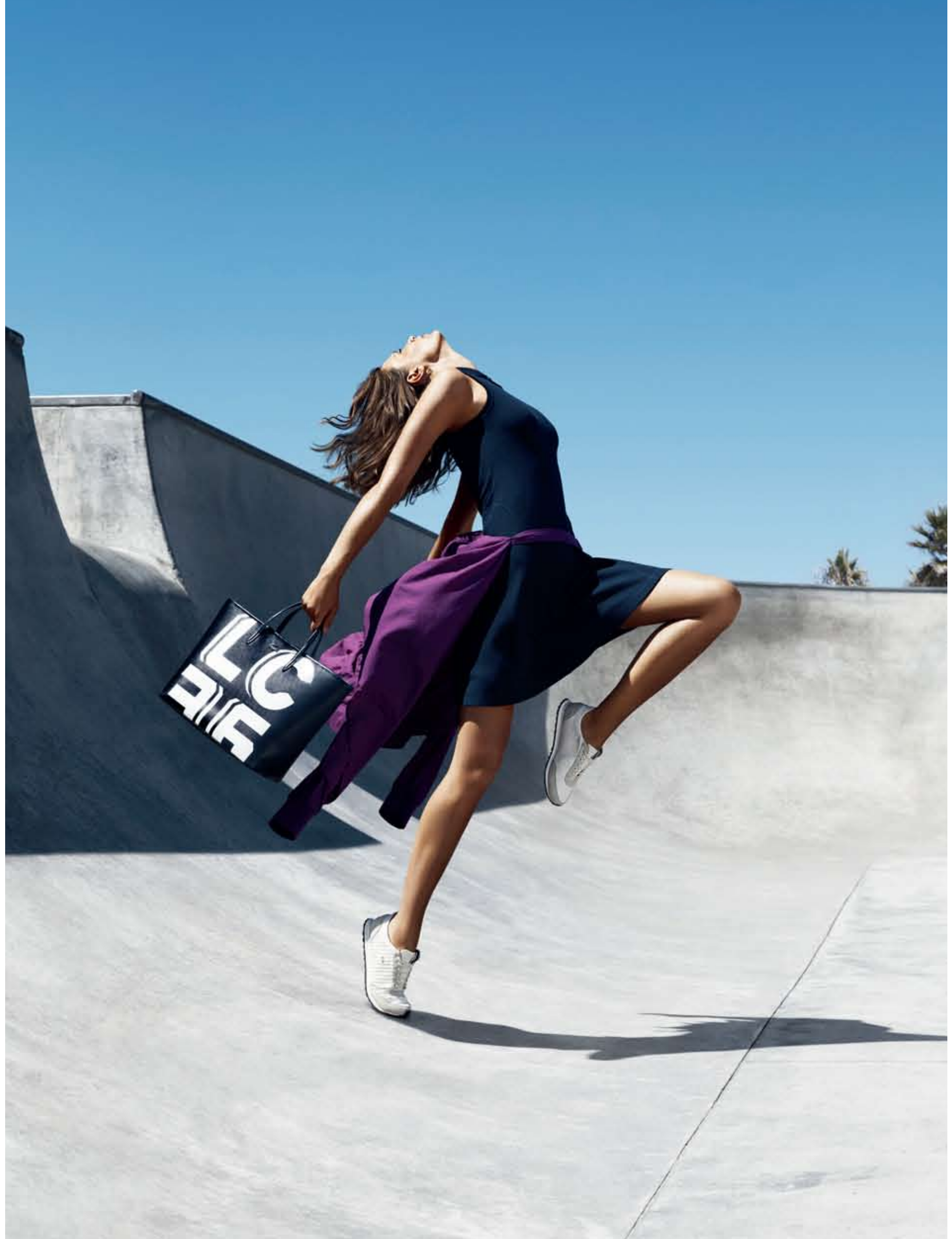
브레게 브띠 플리르 하이 주얼리 워치 엄지손가락 크기에 불과한 다이얼을 구동하는 상징이 브레게의 정신이 담긴 셀프인딩 기계식 무브먼트 칼리버 615라는 사실은 브랜드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미묘하게 움직이는 바케트 컷 다이아몬드는 12.53캐럿에 달하고, 다이얼에도 다이아몬드 1백41개를 정교하게 스노 세팅했다. 다이얼을 덮고 있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돌 형태로 만들어 더욱 입체적이다. 가격 미정, 문의 02-2118-6480

몽블랑 보행 데이트 워치 지름 27mm 다이얼의 실용적인 스틸 소재 여성 워치. 플리츠스카트에서 영감을 받은 71오세 패턴의 다이얼이 상채다. 6시 방향에 나뭇잎 모양으로 세팅한 날짜 창이 매력적이다. 배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음에도 가격이 매력적이다. 9백43만원, 문의 02-3485-6627

블랑팡 레이디 버드 울트라 슬림 워치 '무장할래라는 뜻을 지닌 블랑팡의 여성용 워치. 레드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스몰 다이얼 워치로는 드물게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케이스 사이즈 21.5mm로 미니 워치를 원하는 여성에게 추천한다. 1천8백만원대, 문의 02-3467-8426

까르띠에 뉴 베누아 미니 주얼리 워치 프랑스어로 '욕조를 의미하는 베누아 워치는 까르띠에의 총성도 높은 여성 고객들이 가장 사랑하는 워치다. 매력적인 타원형 다이얼, 착용감이 뛰어난 정교한 브레슬릿은 클래식한 매력과 고스란히 담고 있다. 4천 백만원대, 문의 1566-7277

샤넬 화인 주얼리 프리미에르 파리 빙동 광장과 샤넬 남녀 5 황수병 투쟁에서 영감을 얻은 팔각형 케이스의 프리미에르 워치. 22mm의 작은 사이즈다. 어떤 룩에도 스타일링시범을 더해준다. 2천8백만원대, 문의 02-3442-0962
에디터 배미진



라코스테 디지털 플래그십 Lacoste.co.kr

LIFE IS A BEAUTIFUL SPORT LACOSTE 

7 *for him* Essential Keyword

파스텔, 데님, 네온 컬러까지, 소재와 컬러, 디자인 모든 면에서 더 과감해진 2015 S/S 맨즈 컬렉션에서 주목해야 할 열 가지 트렌드.

Trend 1_ Lovely Pastel 이번 시즌 남녀 컬렉션을 통틀어 주목해야 할 컬러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파스텔이다. 과거 남성들에게 금단의 열매와도 같았던 파스텔컬러는 이번 시즌 그간의 설움을 딛고 화려하게 급부상했다. 에트로는 평소 엄숙하고 검박하지만 했던 스트라이프 슈트에 핑크를 더해 일탈의 즐거움을 부여했고, 알프레드 던 힐은 보머 재킷에 핑크 컬러를 입혀 딱딱했던 영국 신사가 부드러운 로맨틱리스트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질 샌더는 이번 시즌 컬렉션 전체에 파스텔컬러를 원 없이 썼고, 겐조도 파스텔컬러 포인트로 런웨이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핑크 컬러를 입은 남성들이 거리를 화사하게 물들일 날이 머지않았다.

Trend 2_ Boom, Boom, Bomber! 보머 재킷은 미 공군 비행사들이 쓰는 항공 재킷에서 착안해 디자인한 것으로, 남성 아우터 중에서도 단연 견고하고 강한 남성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이번 시즌 보머 재킷은 다양한 소재와 패턴을 만나 어깨의 힘을 최대한 뺐다. 루이 비통은 항공 정미의 대표 소재인 나일론에 오렌지 컬러를 가미해 생동감을 불어넣었고, 디올 옴므는 시즌 키워드인 그래픽 프린트를 더해 유쾌함을 부여했다. 경쟁해 프린트와 컬러를 통해 아이코닉한 보머 재킷을 완성한 디스퀘어드스와 데님 소재, 데님 스티치 디테일을 사용해 캐주얼하지만 클래식한 보머 재킷을 선보인 프라다까지, 다양한 보머 재킷이 이번 시즌 핫 아우터로 떠올라 빅 하우스들의 선택을 받았다. 시계절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이기에 패션쇼에 등장한 디자인도 부담스럽지 않다.

Trend 3_ Love, Robe 최근 몇 시즌 전부터 로브의 활약이 심상치 않다. 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로브가 매 시즌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즌 로브는 데이 룩과 이브닝 룩 두 가지 요소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아우터로 탈바꿈했다. 제나 쿠티르는 클래식한 동시에 모던한 로브로 기쁨 있고 우아한 남성을 표현했고,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블랙 컬러와 소재 특유의 광택을 활용해 견고한 남성성을 드러냈다. 유려하게 흐르는 실루엣이 특징인 실바트레 페라가모, 세련된 동시에 편안한 무드를 놓치지 않은 루이 비통까지, 관능적이고 세련한 로브의 변신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Trend 4_ Elegant Denim 미국 노동자의 작업복에서 비롯된 데님의 신분은 매 시즌 수직 상승 중이다. 이번 시즌 데님 트렌드는 노동자나 가리의 힐스타가 아닌 고고한 부르주아들이 입을 법한 우아하고 세련된 데님 룩으로 방향을 짚었다. 버버리 프로섬과 발라리는 데님 스타일링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버버리 프로섬은 컬러풀한 재킷과 데님 트리커의 레이아웃을, 발라리는 클래식한 트랜치코트와 데님 아이템으로 동시대적인 룩을 연출해 박수를 받았다. 데님 투 버튼 슈트를 통해 슈트의 정의를 새롭게 쓴 디올 옴므, 데님 고유의 블루 컬러를 활용해 컬러 스타일링을 제시한 프라다는 데님이 이토록 우아하고 세련될 수 있음을 증명하며 데님의 귀환을 알렸다.

Trend 5_ Over Trousers 한 디자이너의 '슬리밍한 철학' 탓에 남성들도 한동안 여자 못지않은 흑독한 다이어트를 감행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엔 안심해도 되겠다. 실루엣이 보다 넉넉하고 여유 있는 바지가 대거 등장했으니 말이다. 그것도 더욱 우아하고 세련되게 예르메네질도 체나의 수장자 쿠티르 라인을 새롭게 선보인 스테파노 피라타는 그의 실루엣 철학이 갖든 브라운 슈트를 통해 더욱 기쁨 있고 넉넉한 팬츠를 선보였고, 에트로는 네이비와 옐로 컬러의 극적인 대비를 통해 실루엣을 더욱 극대화했다. 달콤한 파스텔컬러의 와이드 팬츠를 선보인 질 샌더, 실크 특유의 광택을 이용해 물 흐르듯 유려한 실루엣을 연출한 폴 스미스의 팬츠는 보는 것만으로도 여유가 느껴진다.

Trend 6_ Neon Color 매 시즌 남성 컬렉션의 컬러 팔레트도 진화하고 있다. 부드러운 파스텔컬러부터 눈이 따가울 정도로 알싸한 네온 컬러까지, 남성 컬렉션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다양한 컬러가 등장한 것이다. 이번 시즌 디자이너들이 제안한 네온 컬러 플레이는 철저히게 양극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으로거나 버버리 프로섬과 이투스 스튜디오는 모자라 스니커즈, 또는 바지만 소극적으로 활용해 전체적인 룩에 컬러 포인트만 주었다면, 모스카노와 디스퀘어드스는 탄산수처럼 톡 쏘고, 형광펜처럼 강렬한 극강의 네온 컬러 컬렉션을 선보였다.

Trend 7_ Touch of Art 예술이 패션이 되고, 패션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한다. 예술의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디자이너들은 신비로운 우주 공간 같은 예술이라는 세계에서 언제나 새로운 행성을 찾아 헤맨다. 지난 시즌 7차 문화의 거센 열풍이 뭣 탓일까? 이번 시즌 패션 속 예술은 더욱 위트 있고 유쾌하게 등장한 것이 특징이다. 버버리 프로섬은 빈티지 북 커버에서 영감을 받아 클래식한 재킷과 셔츠, 바지에 악살스러운 프린트를 입혔고, 디올 옴므는 스트리트에서 볼 법한 그래픽을 하이 패션으로 승화했다. 디스퀘어드스는 특유의 위트를 발휘해 엔디 위홀의 매릴린 먼로를 패러디했고, 폴 스미스는 감각적인 팝아트 프린트로 모던한 감성을 대변했다. 별도의 리필료는 필요 없다. 곧 이 작품들이 거리를 점령할 테니.



Neon Color_DSQUARED2

Elegant Denim_BALLY

Lovely Pastel_JIL SANDER

Boom, Boom, Bomber_LOUIS VUITTON

과연 어디까지일까?

Love, Robe_ZENGA COULTURE

Over Trousers_ETRO

Touch of Art_BURBERRY PRORSUM



LOOK OPTICS CO. +1599-3016 Style CK7993



7 *for her* Essential Keyword

아슬아슬하고 아찔한 슬릿 스커트부터 대담하고 화려한 1970년대 히피 룩까지, 2015 S/S 시즌 여성 컬렉션의 7개 트렌드 키워드.

Trend 1_ HOLA! Flamenco! "올라 카르멘~" 그녀는 민족보다 뜨거운 피가 흐르는 에스파냐의 기백을 담은 춤이리던, 단연 플라멩코다. 플라멩코는 15세기 스페인 남부에 정착한 짐사들이 만들어낸 춤으로, 화려하고 기교적인 멋이 매력적이다. 이번 시즌에는 에스파냐 특유의 장열을 담은 울동감을 떠올리게 하는 다양한 플라멩코 룩을 엿볼 수 있다. 최근 몇 시즌째 시칠리아 잎에 빠진 들체만가리는 붉은 카네이션으로 가득한 블랙 시스루 드레스로 색다른 짐사를 연상케 했고, 셀린느는 같은 카네이션 프린트의 랩 드레스로 차분하고 수줍은 소녀를 떠올리게 했다. 반면, 생로랑과 스텔라 장은 동시대적인 해석으로 더욱 자유로운 룩을 선보였다. 생로랑은 붉은색 체리 프린트의 원 솔더 드레스로 빈티지한 무드의 플라멩코 룩을 멋지게 풀어냈다.

Trend 2_ White Romanticism 이번 봄과 여름에도 화이트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트렌드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이번 시즌에는 화이트 본연의 깨끗함은 남겨두고, 메시, 아일릿, 레이스 같은 디테일을 심분 활용해 조금 더 달달해지고 사랑스러운 '화이트 로맨티시즘'이 도래했음을 적극 시사했다. 먼저 루이 비통은 메시와 레이스, 시스루라는 디테일과 소재의 변주를 통해 1970년대 무드의 로맨틱한 A라인 드레스를 선보였고, 살바토레 페라가오는 과감한 카팅과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시폰 소재의 드레스를 통해 화이트 룩이 이토록 매력적이고 관능적인 룩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메시 소재를 활용해 화이트의 순수함을 표현한 조르지오 아르마니, 생형문자를 연상케 하는 낙낙한 실루엣의 유니크한 프린트 드레스를 소개한 에르메스, 메시한 셔츠에 아일릿 디테일을 통해 우아하고 페미닌한 룩을 선보인 토자기까지.

Trend 3_ Slit, Slice 여자의 노출이란 응당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일 듯 말 듯 은근한 매력의 슬릿 스커트는 최적의 아이템. 이번 시즌 디자이너들은 슬릿 스커트를 좀 더 모던하고 스마트하게 해석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먼저 질 샌슨은 가죽 소재 슬릿 스커트와 카디건, 셔츠를 매치해 특유의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모던 룩을 선보였고, 펜디는 카팅이 구조적인 슬릿 스커트와 동양적인 프린트로 은근한 분위기를 풍겼다면, 시폰 소재의 슬릿 스커트와 퍼 디테일의 톱을 활용해 극적인 대비를 이룬 구찌의 룩도 눈에 띈다. 반면 에르메스는 에스닉한 무드의 프린트로 편안하고 페미닌한 룩을 완성했다.

Trend 4_ Couture Denim 이번 시즌 데님은 '화려하거나, 우아하거나, 쿨투르 감성'이 갖는 다양한 데님 컬렉션으로 그 범위를 짚었다. 먼저 화려한 쿨투르의 매력을 한껏 드러낸 컬렉션을 꼽으라면, 단연 돌체앤가버나다. 한 뼘 한 뼘 장인의 장인이 갖는 각종 장식으로 뒤덮인 데님 팬츠와 블랙 시스루 톱의 매치는 돌체앤가버나 특유의 관능적이고 색다른 멋을 가감 없이 드러냈고, 레트로풍의 데님도 눈에 띄었다. 루이 비통은 와이드한 깃의 하이웨스트 데님 팬츠와 클래식한 재킷으로 빈티지 클래식 룩을, 구찌는 1970년대 스타일 밀리터리 디테일의 데님 재킷과 팬츠로 보호 시크 룩을 선보였다.

Trend 5_ Tribal Travel 원시 부족의 이국적인 멋을 담은 트라이벌 룩이 프린트와 실루엣, 액세서리의 다양한 변주를 통해 한층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에스노히지만 동시에 모던한 것이 이번 시즌 트라이벌 트렌드의 키워드. 먼저 미르나는 브랜드 특유의 프린트와 실루엣 플레이, 그리고 모던한 액세서리와 민속적인 감성의 목걸이를 매치해 동시대적인 트라이벌 룩을 선보였다. 에트로는 인디언풍 패치워크가 돋보이는 드레스와 청가시 스웨이드 부츠로 페미닌한 에스닉 룩을 선보였고, 사벨은 에르메스는 트라이벌 프린트의 실루엣 낙낙한 드레스 룩으로 모던한 감성을 잊지 않았다. 반면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아마존 원주민의 패션을 연상시키는 목걸이로 모던한 화이트 수트를 단숨에 토속적인 무드의 트라이벌 룩으로 변신시켰다.

Trend 6_ Hey, Hippie 반전과 자유를 외치던 1970년대 히피족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대담한 프린트와 빈티지한 컬러, 가죽과 데님, 트위드 등 다양한 소재의 활용이 돋보이는 히피 패션이 이번 시즌 더욱 화려하고 강렬하게 부활한 것이다. 구찌는 목을 감싸는 화이트 시스루 블라우스와 A라인 스커트, 롱부츠를 매치해 이번 시즌 역시 1970년대로의 회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사벨은 화려한 프린트의 드레스와 기장이 짧은 트위드 재킷으로 로맨틱한 히피 룩을 선보였으며, 토지는 캐주얼 레드 컬러의 대비로 빈티지한 매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렸다. 생로랑은 1970년대 로큰롤 문화를 연상케 하는 대담한 글램 룩으로 당당하고 자유를 사랑했던 히피를 표현했다.

Trend 7_ Belted Edge 허리는 질북하게, 실루엣은 예지 있게 이것이 벨트의 차별적인 매력일 것이다. 페미닌하고 로맨틱한 드레스 룩부터 시크한 수트 룩까지, 이번 시즌 벨트는 그 어떤 시즌보다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으로 찬란한 활약을 펼쳤다. 먼저 셀린느는 메시한 수트에 같은 소재의 벨트를 무성하게 둘러 구조적인 실루엣으로 탈바꿈시켰고, 살바토레 페라가오는 오버사이즈 사파리 재킷과 팬츠에 벨트를 활용해 여성적인 멋을 더했다. 다음은 여성스러운 플라워 프린트의 수트에 심플한 가죽 벨트를 더해 시크함을 부여했고, 사벨은 스트라이프 니트 카디건과 드레스, 골드 컬러 벨트를 매치해 클래식한 룩을 연출했다. 화이트 셔츠와 블랙 소츠, 그리고 마치 챔피언 벨트 같은 돌체앤가버나 벨트도 예지 룩은 화려함과 대담함에 그 범주를 짚었다.



Mercedes-Benz Perfume.

Rose, the new fragrance.



INCC - Licensee of Daimler AG

피부 건강 지키고, 메이크업 지속력 높이고. 올봄 메이크업 트렌드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 표현과 시원하고 청결한 느낌의 베이지 컬러다. 하지만 아무리 트렌디하게 연출한 메이크업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맑고 유분기로 보기에 쉽게 캄캄해진다. 평소 지루지거나 열독진 부분을 수정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도 함께 발라야 집터 생성을 막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싶다면 안티에이징 성분을 함유한 베이스를, 눈가처럼 민감한 피부에는 눈가 전용 제품을 바르는 등 본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베이스 메이크업, 충충하게 해야 지속력 강해져. 이번 시즌 유행인 내추럴 메이크업에서 주목할 것은 충충한 피부 연출이기다.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기초 화장품들을 바르면 화장이 밀릴 수 있으므로 팩을 하거나 액상 로션을 화장솜에 듬뿍 덜어 3분 정도 얼굴에 올려두는 것으로 대신한다. 자외선 차단제와 프라이머를 바른 후에는 피부 톤을 보정하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고 손의 인력과 체온을 이용해 지그시 눌러준다. 마지막으로 펄 베이스 제품을 소량 덜어 T존과 U존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펴 발라 피부가 입체적으로 보이고 광택이 나도록 완성한다.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포인트 메이크업. 특히 한국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흉조가 올라오는데, 핑크는 과하게 붉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치크는 핑크와 주황색을 적절히 조합한 색으로 정열적이면서도 지극인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블러셔를 이용할 때는 브러시에 내용물이 충분히 묻을 수 있도록 하고 한 번 톡 털어준 뒤 바른다. 이때 눈선은 얇게 그리는 것보다 도톰하게 그리는 것이 어려 보인다. 또렷한 눈매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속눈썹 끝 부분부터 마스카라를 깔고후 바른 후 잠시 건조시킨 다음 한 번 더 발라 마치 빠져들 것처럼 깊은 눈을 연출한다. 아이러이 너는 정리를 충충히 채우고 언더라인까지 함께 그리는 것이 좋다. 이때 언더 라인에는 블랙보다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면 눈매를 더욱 부드럽고 깊게 연출할 수 있다. **에디터 배미진**

(오른쪽 아래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 루마네스 컬러 컨트롤 브라이드 모이스처라이저 SPF 35** 파운데이션 단개 전에 발라 최상의 피부 컨디션을 지켜준다. 30ml 7만원. **조르지오 아르마니 아이 틴트 #11** 밀착력과 지속력이 뛰어난, 마지 립 글로스를 연상케 하는 액상 아이 틴트. 6.5ml 4만8천원. **프레쉬 슈가 하니 립 트리트먼트 SPF 15** 립스틱 바르기 15분 전에 발라주면 일어난 각질을 정리한다. 4.3g 3만4천원.

인생로랑 루주 블링베 밀착력이 뛰어나 인술 선에 맞춰 바르면 자연스럽게 또렷한 인술이 완성된다. 4g 3만9천원. **버버리 프라워 글로우 캄팩트 파운데이션** 가볍게 쓸어내는 것만으로도 피부 톤을 정돈해준다. 8g 6만8천원. **비비 브라운 슈머 브러 캄팩트** 얼굴의 인체적인 윤곽을 살리는 데 유용하다. 10.3g 6만8천원. **통포드 뷰티 립 컬러 광택감**이 뛰어난 립 컬러. 3g 6만원. **버버리 립 글로우** 인공에만 살짝 바르면 인술에 생기를 더한다. 6ml 3만6천원. **샤넬 르 블랑 화이트 크리에이터 브라이팅 베이스 SPF 40 PA+++** 광대라 T존 부위에 바르면 화사한 피부로 표현해준다. 30ml 7만원. **나스 올 데이 루마네스 웨이트리스 파운데이션** 손으로 꼭꼭 누르면 은은한 윤기를 더해준다. 30ml 6만7천원. **인생로랑 르 탭 앤드르 드 뽀** 밀착력이 뛰어난 파운데이션. 25ml 7만7천원. **에스티 로더 퓨어 컬러 네일 락카 크리스탈 베이비 캄팩션** 손끝까지 누드 컬러를 매치해준다. 9ml 2만6천원. **랑콤 마이 프렌치 캄팩트** 누드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더하는 파스텔컬러 팔레트. 8.6g 8만9천원. **다올 다올스킨 누드 에어 세럼 파운데이션 SPF 25 PA++** 스광으로 화사한 피부 톤을 완성할 수 있다. 30ml 7만5천원. **다올 다올스킨 누드 에어 파우더 & 캄팩트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브러시에 파우더를 묻혀 쓸어주면 순식간에 보송보송하고 어린 피부가 완성된다. 루스 파우더 10g 7만7천원, 캄팩트 파우더 16g 7만3천원.

다올 02-3438-9546 **랑콤** 080-022-3332 **에스티 로더** 02-3440-2772 **인생로랑** 080-347-0089 **나스** 02-6905-3747 **샤넬** 080-332-2700 **통포드** 02-3440-2760 **버버리** 02-3485-6583 **프레쉬** 080-822-9500 **조르지오 아르마니** 080-022-3332 **비비 브라운** 02-3440-2781



super Natural

이번 시즌에는 마치 메이크업하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가 트렌드다. 여러 브랜드에서 내놓은 제품은 자연스러운 베이스를 뒷받침하기에 제격인 아이템이 주를 이룬다. 인위적이지 않은 내추럴한 아름다움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수업인 : 라프래리(프라이어)
고객상담실 080-511-6626 / www.laprairie.com



15일에 시작되는 눈부신 피부 변화 [NEW] 안티 에이징 래피드 리스폰스 부스터

라프래리의 신제품 안티 에이징 래피드 리스폰스 부스터를 소개합니다. 실기한 리퀴드 젤 세럼은 라프래리의 혁신적인 타겟티드 델리버리 시스템으로 피부가 꼭 필요로 하는 부위에 유효 성분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매일매일 세심하고 정확하게 피부를 케어해주는 부스팅 세럼은 늘 사용하는 제품의 효과를 함께 증대시켜 당신의 피부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변화시켜줍니다. 매끄럽고 고운 피부결로 되살아나는 동안 피부, 15일에 시작되는 피부 변화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3438-6077 무역센터점 501-4420 목동점 2163-1152 천호점 2225-7156 부산점 051-644-9787 대구점 053-245-2135 울산점 052-228-0160 롯데백화점 본점 772-3130 잠실점 2143-7187 강남점 531-2156 문당점 031-738-2167 대구점 053-660-3007 부산본점 051-810-3108 광주점 062-221-1151 신세계백화점 본점 310-5068 강남점 3479-1291 경기점 031-695-1667 센텀시티 051-745-2279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WEST 516-8881 타임월드점 042-720-6141 AK PLAZA 문당점 031-709-9742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053-253-6949



romantic Poetry

스치고 지나가는 소매 자락을 따라 은근히 이어지는 싱그러운 파츨리 향, 로맨틱한 향기를 품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바로, 봄의 설렘으로 가득한 지금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로즈 아마존 오 드 투왈렛** 자유롭고 모던한 여성상을 의미하는 아마존(Amazon)에서 이름을 딴 독특한 느낌의 향수. 파츨리도 진동에서 영감을 얻어 클라시카다. 특 쓰면서도 달콤하고 부드러운 이중적인 향기로 시트러스와 라즈베리, 커런트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은은하지만 럭셔리하다. 100ml 14만원, 문의 02-3440-2760

에르메스 로즈 아마존 오 드 투왈렛 자유롭고 모던한 여성상을 의미하는 아마존(Amazon)에서 이름을 딴 독특한 느낌의 향수. 파츨리도 진동에서 영감을 얻어 클라시카다. 특 쓰면서도 달콤하고 부드러운 이중적인 향기로 시트러스와 라즈베리, 커런트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은은하지만 럭셔리하다. 100ml 19만원, 문의 02-727-1596

샤넬 코코 미드모아젤 오 드 파르페 코프레 보석 상자 안에 오 드 파르페 향수(50ml)와 3개의 리필이 포함된 펠스 스퀘어(7.5ml)로 구성된 한정판 제품. 생기 넘치는 오렌지의 상쾌함을 느낄 수 있게 여성스러우면서도 활동적인, 대담한 여성에게 어울린다. 세트 21만원, 문의 080-332-2700

마크 제임스 데이지 스프레이 에디션 여자라면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디저틴의 향수. 청초한 꽃향기에 달콤한 과일 향을 혼합해 생애한 매력을 담았다. 자주 사용해도 질리지 않는 대중적인 향기의 향수다. 50ml 8만원, 문의 02-3443-1805

플라워 바이 겐조 로 오리지널 순수한 물과 포피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향수. 오래도록 가까운 여성의 매력을 표현해온 플라워 바이 겐조의 탄생 15주년을 기념해 피오나와 프리지어, 마스크가 어우러진 은은한 향기를 완성했다. 향수에 입문하는 여성에게 추천한다. 30ml 7만원, 문의 080-344-9500

랑방 에리미 오 드 파뮌 다양한 향기와 컬러로 변주되며 오래도록 인기를 얻고 있는 랑방의 새로운 핑크 컬렉션. 플로럴 프루티 마스크 계열의 향기로 생동감이 넘친다. 블랙베리와 블랙 커런트의 향기가 마음까지 자극한다. 리본이 포인트인 패키지는 언제나 사랑스럽다. 30ml 6만5천원, 문의 080-800-8809 에디터 배미진

* 향수와 함께 사랑한 주얼리는 **타피니 키 컬렉션**.



La Rouge
2015년, 나에게 선물하는 가장 핫한 레드 - 라루즈

running Men

따뜻한 햇살에 봄기운을 느끼며 걷기 좋은 계절이다. 발이 편해야 온몸이 편안하듯 이럴 때일수록 가볍고 폭신평신했던 스니커즈가 제격이다. 당신의 취향을 저격할 뉴 스니커즈.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일찍달라한 컬러 드로잉이
유틸리티 있는 레더 스니커즈
가격미정 **디올**.



코튼 소재로 가벼운 착용감을 자랑하며 화이트 컬러
라인이 포인트인 스니커즈 90만원대 **에르메스**.



레드 컬러의 테크 메카노
올 소재를 사용해 강력한 분위기를
풍긴다. 59만원 **Z 제너**.



차분한 브라운 컬러의 악가죽이 고급스러운 스니커즈 4백만원대 **루이 비통**.



레드와 그린, 화이트
컬러의 조합이 상큼한
컨트라스트 폼보 스니커즈
69만원 **구찌**.



탁 트인 바다가 떠오르는
청량한 블루 컬러의 스니커즈
93만원 **피에르 아르디**.



옐로, 레드, 파플 등 비비드한
컬러가 조화를 이루는 그래픽이
레더 스니커즈 92만원 **버버리**.



카무플라주 패턴과
스타드 장식이
스타일리시한 부드러운
양가죽 소재 스니커즈
1백만원 **발렌티노 by
분더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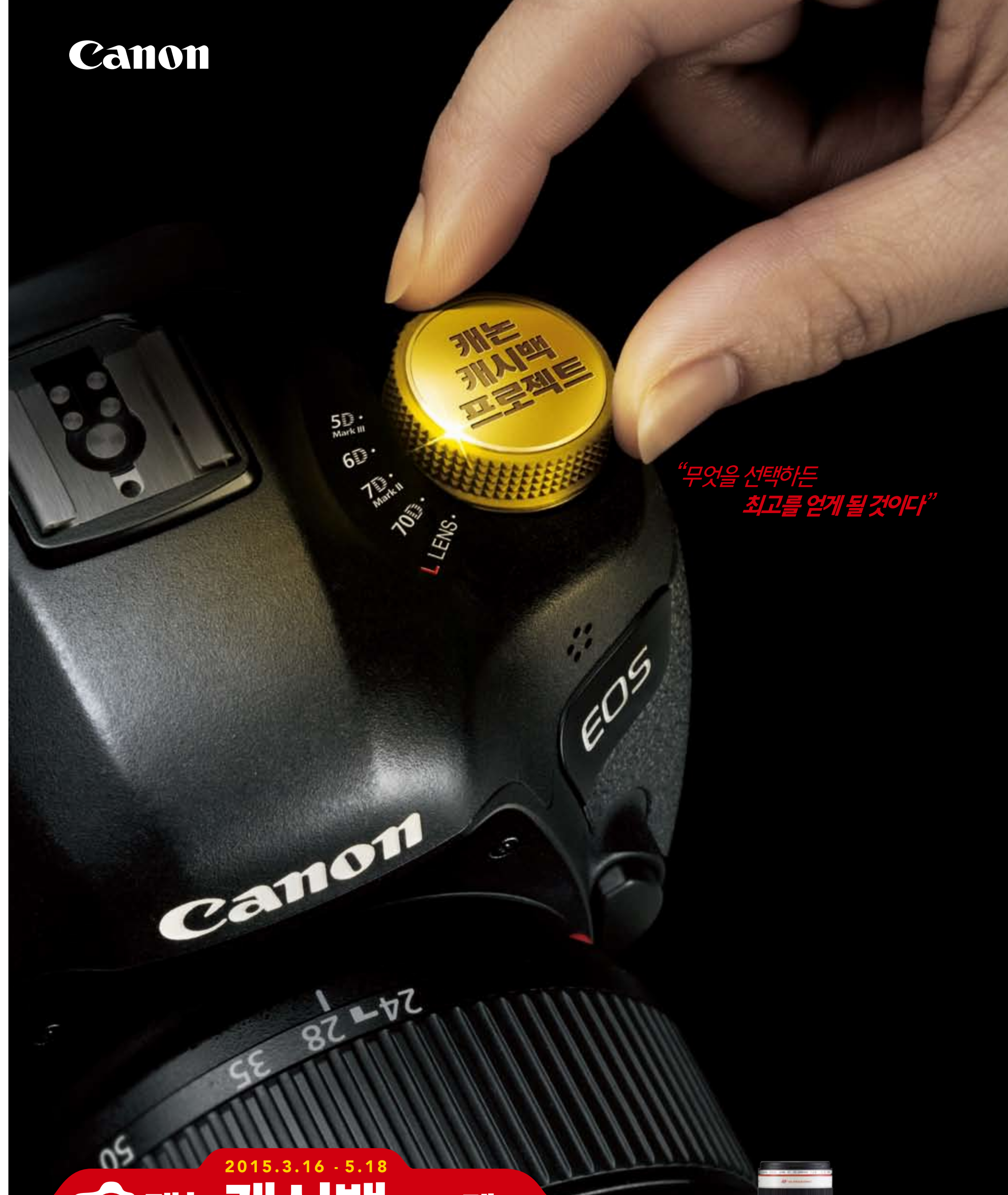


경쾌한 빈디나 프린트가
인상적인 캔버스 소재의
스케이트 레이스업 스니커즈
58만원 **생로랑**.
에디터 권유진, 김지혜

스타일링: 유영정, 이노비트 이상영, 박재민

디올 02-513-3232 에르메스 02-544-7722 Z 제너 02-546-6287 루이 비통 02-3432-1854 구찌 1577-1921 버버리 02-3485-6536 분더샵 02-3444-3300 생로랑 02-6905-3924 피에르 아르디 02-310-5052

Canon



“무엇을 선택하든
최고를 얻게 될 것이다”

2015.3.16 - 5.18

캐논 캐시백 프로젝트

지금까지의 캐시백은 잊어라
메가톤급 캐시백이 시작된다!

- 행사 제품
EOS 5D Mark III / EOS 6D / EOS 7D Mark II / EOS 70D / L 렌즈
- 행사 내용
행사 제품 구매 > 홈페이지 정품 등록 > 이벤트 응모 및 승인 > 캐시백 일괄 지급



캐시백은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일괄 지급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canon-cl.co.kr

담블루 컬러 재킷
2백30만원대, 블루 패턴 셔츠
70만원대, 팬츠 80만원대
모두 토즈.

데님 재킷 1백40만원, 레드
팬츠 1백15만원, 바건디
카디건 1백30만원 모두 버버리
프로섬, 레드 레터링 스카프
1백45만원, 멀티컬러 스니커즈
86만원 모두 버버리.

Spring's Standards

소재는 날아갈 듯 가볍고, 때론 숨사탕처럼
부드럽다. 날렵한 실루엣은 경쾌하기 그지없고,
심플한 디자인은 더없이 시크하다. 복고풍의
멋스러움과 모던한 청량감을 함께 보여주는
2015 S/S 시즌의 새로운 맨즈 룩 퍼레이드.
photographed by zo sun hi



블루 컬러 더블 수트
가격 미정, 딥 네이비 셔츠
가격 미정, 자수와 실버
아일릿 장식의 보머 재킷
가격 미정, 브라운 토트백
5백50만원대 모두 루이 비통.



브라운 레더 코트 가격 미정,
블랙 니트 베스트 80만원대,
블루 컬러 셔츠 50만원대,
데님 팬츠 50만원대, 브라운
샌들 1백만원대 모두 프라다.



네이비 & 그레이
스트라이프 재킷 99만원,
팬츠 69만원
모두 **엘포리오 아르마니**.



블랙 & 그레이도트 패턴의
롱 코트, 블랙 & 화이트 컬러
블록 슈츠 모두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퀸, 블루도트
셔츠,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둘째엔가버나.





네이비 더블 재킷
2백53만5천원, 화이트
슬리브리스 톱 80만원,
레드 팬츠 79만원 모두 구찌.

베이지 재킷, 화이트 톱,
패턴 팬츠, 브리프케이스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블랙 &
화이트 샌들 29만8천원 캠퍼,
블랙 안경 19만5천원 트리디.

헤어 & 메이크업 김환
모델 제임스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어시스턴트 진성훈



Smart urban casual

스포츠 웨어도 충분히 세련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랑방스포츠. 지금껏 아웃도어 룩에서 볼 수 없었던 우아한 실루엣과 독자적인 컬러로 럭셔리 시티 웨어의 면모를 드러낸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랑방스포츠, 스포츠 웨어에 우아함을 담다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아웃도어 시장에 랑방스포츠가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부드러운 컬러와 우아함으로 무장한 채 말이다. 단순한 스포츠 웨어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는 시티 웨어를 겸한 아이템을 선보여 요즘 소비자들 사이에서 실용적인 룩으로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했다는 점이 신선하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여름 시즌을 맞아 가볍고 활동적인 두 가지 라인을 선보인다. 잘제된 디테일과 몸을 따라 흐르는 실루엣이 특징인 어반 애슬릿 라인인 방수 재킷, 방풍 소재 트랜스퍼트처럼 지금 당장 입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실용적인 디테일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역동적인 스포츠를 즐길 때 유용한 멀티 포켓부터 탈착 가능한 디테일 장식까지, 스포츠 감성이 그대로 담긴 다이나믹 퍼포머 라인인 스마트한 기능성 소재를 더해 스포츠 활동에 적합하다. 랑방스포츠는 하이테크(hightech), 라이트니스(lightness), 스피드(speed) 등 세 가지 테마 아래 아우터와 팬츠, 티셔츠는 물론 니트까지, 모던한 디자인의 스포츠 웨어를 준비해 당신의 지갑을 열게 할 준비를 마쳤다.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성 소재의 만남

랑방스포츠 2015 S/S 컬렉션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가볍고 실용적인 테크니컬 아우터다. 지금 인기 막 좋은 라이트 필드 재킷은 가벼운 폴리에스테르 소재 안감을 더해 환절기에 착용하기 좋은 멀티 아이템. 이와 함께 데일리 재킷으로 착용할 수 있는 테크니컬 헬딩 재킷은 나일론 소재에 방수 봉제 기법인 심 실린 기법을 접목했다. 앞뒤에 헬딩 디테일을 사용해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했고, 입지 않은 듯 가벼운 것이 장점이다. 가볍고 투명한 특수 소재가 매력적인 트랜스퍼트 장파는 구김이 적어 운동을 하고 난 뒤 잡아서 가방에 넣어둘 수도 있다. 러닝의 품격을 높여줄 라이트 장파는 초경량 소재를 사용해 가벼운 착용감이 특징이고, 유량 소재를 적용해 늦은 밤에도 옷이 팔빛을 반사 하도록 해 안전성까지 갖췄다. 액세서리 역시 시선을 사로잡는다. 자지 소재의 메신저 백은 카키와 블랙 컬러의 조화가 고급스러울 뿐만 아니라 수납공간이 넓어 실용적이다. 더불어 최근 다시금 불고 있는 운동화 열풍에 동참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모던한 디자인의 밴드 헬딩 트레이너스에는 통풍성과 내구성을 두루 갖춘 비브람 솔을 사용했다. 이제 원래의 아웃도어 웨어에서 벗어나 스타일리시한 랑방스포츠의 룩을 한껏 차려입고 나서볼 때, 랑방스포츠 제품은 현대백화점 입구정 본점과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판매한다. 문의 02-3438-6252(현대백화점 입구정 본점), 02-772-3481(롯데백화점 본점) 에디터 권유진, 김지혜

(위에서 아래로) 자전거를 탈 때 유용한 자지 솔다림, 투터치 버클로 간편하게 가방 속 물건을 찾을 수 있다. 48만원, 수납공간이 넉넉하고 카키와 블랙 컬러의 배색이 차분한 자지 메신저 백, 42만원. 모두 랑방스포츠.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고 착용감이 뛰어난 코튼 소재의 헬딩 티셔츠, 네크라인의 맨투맨 디테일이 특징으로, 어떤 스타일이나 걸쳐 입을 수 있어 실용적이다. 각 25만원. 탄성이 좋은 폴리우레탄 트랜스퍼트 장파, 속이 바치는 투명한 소재가 특징으로 더워지는 날씨에 가볍게 착용하기 좋다. 70만원. 블랙과 화이트로 모던하고 세련된 매력을 풍기는 헬딩 트레이너스 운동화 각 42만원. 모두 랑방스포츠.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방수 봉제 기법인 심 실린을 사용해 기능적인 요소를 업그레이드한 나일론 소재의 테크니컬 헬딩 재킷 70만원. 자지와 메시 소재로 생활 방수 기능을 갖춘 자지 백팩, 착용 시 등에 닿는 부분은 폭신한 소재를 활용해 어깨의 부담을 덜어준다. 58만원. 충격을 흡수하고 가볍기까지 한 비브람 솔을 활용한 밴드 헬딩 트레이너스 스니커즈. 랑방만의 세련된 컬러 배색이 고급스럽다. 42만원. 모두 랑방스포츠.



(왼쪽부터 차례대로) 앞면은 경량의 나일론 폴리 소재를, 뒷면은 신축성이 뛰어난 자지 소재로 제작해 활동성을 높인 라이트 헬딩 장파 65만원. 통풍성이 좋은 메시 소재를 안감으로 사용한 라이트 재킷, 가벼운 장파형 재킷으로 세련된 디자인이 데일리 아이템으로 손색없다. 65만원. 모두 랑방스포츠.

editor's Pick

꽃잎이 물들 듯 화사함을 더해줄 메이크업 제품과 봄 햇살처럼 반짝이는 피부를 완성해줄 스킨케어 제품까지,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선정한 4월의 뷰티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루주 코코 444 기브라벨** 클래식한 레드 립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땐 샤넬의 루주 코코가 제격이다. 여성스러움을 더하는 루주 코코는 선명한 발색력과 부드러운 발림성을 지니며 실용성 왁스 성분을 함유해 영양과 수분까지 공급해준다. 빈티지는 인자가 인술을 더욱 매력적으로 연출해준다. 3.5g 4만1천원. 문의 080-332-2700. *by 어시스턴트 에디터 박혜미*

조르지오 아르마니 아이 틴트 09 플드 코퍼 크리미하게 발리면서 인크리머 선명하게 발색되는 신개념 아이 틴트. 눈가림에 완벽하게 밀착되어 기부가 날라거나 팔이 눈 밑으로 떨어질 일이 없다.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번지지 않는 지속력까지 자랑하니 이만한 아이 제품도 없다. 특히 플드 코퍼는 빛과 각도에 따라 오묘하게 빛나는 골드 컬러가 매력적이다. 6.5ml 4만8천원. 문의 080-022-3332. *by 어시스턴트 에디터 박혜미*

비다비치 메이크업 스타일러 한 손에 들어오는 메이크업 스타일러는 피부를 보습 보습하게 정리할 수 있는 파우더 팩트와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운 컬러의 아이 섀도, 립글과 루주까지 결합했다. 모나지처럼 눈색이 민중민중해 브라운 컬러의 아이섀도를 아이 팬솔처럼 사용했는데, 오히려 팬솔로 그린 것보다 자연스럽다. 16.7g 8만5천원. 문의 080-516-1616. *by 에디터 김지혜*

리프레이 에센스 오브 스킨 케어 아이 콤플렉스 리프레이를 대표하는 캐비어 컬렉션의 아이 케어 제품으로, 여타 캐비어 라인에 비해 가격도 합리적이다. 발림성이 우수해 소량만 사용해도 촉촉해지기에,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면 좋다. 민감한 피부에 적합하다. 15ml 1만9천원. 문의 080-511-6626. *by 에디터 배미진*

슈에무라 스테이시 피프로 글로우 크리에이터 01 퓨어 글로우 아무것도 바른지 않은 듯하지만 윤기 나고 매끈해 보이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베이스. 미세한 진주 빛 입자가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자연스러운 광채를 선사한다. 지옌션 차단 기능을 갖추었으니 메이크업 전 선크림을 바르듯 가볍게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30ml 4만9천원. 080-022-3332. *by 에디터 김지혜*

실화수 블루마이스 팩트 실제로 투명한 피부의 빛 반사율을 분석해보면 블루빛의 반사율이 높을수록 피부가 투명해 보인다고. 이에 주목해 핑크의 무가게 색상 중 블루빛만 골라 반사시키는 블루 부스팅 파우더를 함유한 제품이다. 2분씩 오렌 시간이지나도 피부가 착색해지는 다크닝 현상이 거의 없다. 10g 8만5천원. 문의 080-023-5454. *by 에디터 권유진*

에르메스 지르맹 무슈 리 에르메스의 조형사 장 클로드 엘레나가 지르맹 시리즈 중 다섯 번째로 새롭게 선보이는 향수. 중국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그린 노트 계열의 싱그러움 향이 매력적이다. 100ml 16만5천원. 문의 02-310-5174. *by 어시스턴트 에디터 박혜미*

나스 듀얼-인텐시브 플라쉬 에이드레인 대담하면서도 화사한 시아멧 핑크와 시아멧로온 스파클링 베이지 핑크 블러셔를 하나로 구성된 듀얼 플레트. 획기적인 핑크 & 드라이 포뮬러로, 자연스러운 핑크와 대담한 색상 표현을 위해서는 미분 상태로, 보다 생생하고 수채화같이 투명한 컬러감을 연출하고 싶다면 브러시에 물을 묻혀 사용할 것. 6g 7만4천원.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권유진*

SK-II 피테라 나잇 미스트 환절기에 사용하기 제격인 미스트로, SK-II의 피테라 에센스를 작은 용기에 그대로 담았다. 톤날 때마다 수시로 미스트를 뿌려줬더니 볼만 되면 코끝에 일어난 각질이 양산해졌다. 데오와 나잇 미스트로 출시되는데, 특히 나잇 미스트는 민트 성분이 들어 있어 뿌리는 즉시 상쾌한 기분이 든다. 50ml 7만원. 문의 080-023-3333. *by 에디터 김지혜*

프래쉬 로터스 유스 프리즈브 아이크림 10만원 미만이라는 매력적인 가격의 백화점 브랜드 아이크림을 찾는 여성들에게 추천하는 제품. 비르자까지 촉촉해지는 텍스처가 매력적이며 연꽃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 평소 아이크림에 관심이 많거나 텍스처를 고르는 기준이 까다로운 이들까지 만족시켜줄 제품이다. 15ml 7만2천원. 문의 080-822-9500. *by 에디터 배미진*

인생로망 볼링에 틴트-오일 최근 각광받고 있는 틴트의 장점을 결합한 립 제품. 선보이는 컬러와 제품이다. 대히트를 기록하는 인생로망의 제품인 만큼 이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발색력이 뛰어난 것은 물론 촉촉함과 생기를 더하는 편리한 제품. 6ml 4만3천원. 문의 080-347-0089. *by 에디터 배미진*

필로스티 미라클 워커 오버 나이트 에이징리세인 안티링클 모이스처라이저 적당한 유분감이 피부를 감싸 수분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잡아주는 노크이다. 야기에 비타민 C,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해 안티에이징 기능이 더해졌다. 자기 전 얼굴에 듬뿍 발라 수면 팩으로 사용하면 다음 날 아침 쫄쫄해진 피부를 만날 수 있다. 60ml 8만9천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김지혜*

빌리프 프라블럼 솔루션 그린 모이스처라이저 트러블성 피부와 민감성 피부를 위한 저자극 모이스처라이저로, 천연 성분을 함유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시원하고 가벼운 텍스처가 피부에 바르는 순간 산뜻하게 스며든다. 일주일 정도 사용하면 결과 트러블이 진정되고 붉은기가 가라앉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했다. 125ml 3만9천원. 문의 080-023-7007. *by 어시스턴트 에디터 박혜미*



Moist day time

여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맑고 깨끗한 피부. 여배우는 물론 수많은 마니아층을 거느리며 여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피테라 에센스가 스프레이 타입의 미스트로 출시된다는 반가운 소식. 아침부터 밤까지 물을 머금은 듯 촉촉한 피부를 지켜주기 위해 우리 앞에 나타난 피테라 미스트를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후 2시, 피부에 에센스를 채우다

따뜻해진 날씨에 기온은 한층 높아졌지만 불만 되면 초아오는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는 점점 매달린다. 아침마다 메이크업을 하기 전 스킨케어에 충분히 공을 들여도 오후 2시쯤만 되면 어김없이 피부가 땅긴다. 급하게 물을 고ծ 미스트를 뿌려보지만 일회적인 미스트는 촉촉함이 만족스럽지 않고 오히려 더더 매마르게 할 뿐이다. 그렇다고 메이크업 위에 에센스와 크림을 덧바르기에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SK-II는 이러한 여성들의 고민을 알아챈듯 피테라 에센스를 휴대하기 간편한 미스트로 제작했다. 기존 피테라 에센스를 스프레이 타입의 용기에 담아 휴대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탄생시킨 피테라 미스트는 낮과 밤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된 하루 종일 수분을 채워줄 준비를 마쳤다.

하루 종일 촉촉한 아침 피부를 만나다, 피테라 데이 미스트

숙면을 취한 듯 촉촉한 피부를 하루 종일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점에 집중한 SK-II는 모공의 1/4 크기인 미세한 분사 입자가 피부 속까지 침투해 빈틈없이 수분을 채워주는 피테라 데이 미스트를 추천한다. SK-II 피테라 데이 미스트는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에 쌓인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 본연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피테라™와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모이스처링 기술을 접목해 피부에 빠르게 수분을 채워주어 붉은기를 잠재워준다. 특히 하루 종 피부가 가장 건조해지는 시간인 오후 2시쯤 메이크업 여부와 상관없이 얼굴 전체에 골고루 2~3회 분사한 후 피부를 톡톡 두드려주면 하루에 필요한 수분 충전 완료. 메이크업이 들뜨고 얼굴빛이 칙칙해지기 시작할 무렵이라도 수분을 촉촉이 머금은 물광 피부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마치 관리를 받은 듯 보인 피부와 보고 주변에서 당신의 피부 관리 비결을 물음지도 모른다.

밤 사이 피부의 수분을 지켜주다, 피테라 나잇 미스트

낮 동안 외부 스트레스에 노출된 피부에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 피테라 나잇 미스트는 민트에서 추출한 성분이 분사되는 즉시 상쾌한 쿨링 효과를 발휘해 예민하게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킨다. 화식 자리에 서의 음주와 잦은 야근에 따른 수면 부족, 스트레스는 밤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피부를 괴롭히는 원인이 되는데, 잠들기 전 기본적인 스킨케어를 마쳤다면 피테라 나잇 미스트를 잊지 않도록. 안티어미 미세한 분사력을 자랑하는 피테라 나잇 미스트가 피부에 고르게 스며들어 수면 중에도 피부 속 수분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준다. 배우 김화희가 말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아름다운 피부를 원한다면, 한 손에 들어오는 피테라 미스트를 매일 기증 안에 넣고 다니며 손쉽게 관리해보자. 피테라 에센스와 마찬가지로 피테라 데이, 나잇 미스트는 나이와 관계없이,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 환절기 필수 아이템이 되어줄 것이다. SK-II 피테라 데이 미스트 50ml, SK-II 피테라 나잇 미스트 50ml 각 7만원. 문의 080-023-3333. *에디터 배미진, 김지혜*

Airy touch, fresh skin

‘피부가 숨 쉬는 것처럼 가벼운 느낌, ‘공기와 같이 가벼운 텍스처’. 광고 카피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시즌 디올의 베이스 메이크업 키워드는 극도로 가볍고 자연스러운 누드 메이크업이다. 전설적인 리퀴드 파운데이션 라인업을 갖춘 디올은 리퀴드 파운데이션의 편견을 깨고 아주 가볍고 간단하며 패키지 역시 획기적인 디올스킨 누드 에어를 선보인다. 디올이 늘 그래왔듯, 우아하고 세련된 화법으로 말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차례대로) 디올스킨 누드 에어 세럼 파운데이션 SPF 25 PA++ 30ml 7만5천원, 디올스킨 누드 에어 루스 파우더 16g 7만7천원, 디올스킨 누드 에어 컴팩트 파우더 10g 7만3천원 모두 디올.

피부 본연의 컬러와 빛을 살린다

뽀얗고 맑은 소녀의 피부처럼 보송보송한 피부 표현이 강세일 때도, 물에 흠뻑 젖은 듯 촉촉한 베이스 메이크업이 유행할 때도 결론은 ‘누드’, 즉, 내추럴 메이크업이었다. 수년간 진화를 거쳐 2015년, 대세로 자리 잡은 누드 메이크업을 1990년대 메이크업을 연상케 하는 갈색 립스틱을 바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해다. 과거의 누드 메이크업이 피부를 창백해 보이게 하거나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지금 트렌드를 지배하는 누드 메이크업은 한 듯 안 한 듯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피부 본연의 결과 톤, 광을 드러내는 베어(bare, 헐벗은) 메이크업에 가깝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이번 시즌은 누드 메이크업의 종결편이라고 해도 될 만큼 극도로 가볍고 자연스러운 누드 메이크업이 강세이고, 이 트렌드를 이끄는 것은 단연 디올이다. 자연스러움과 우아함이라는 키워드를 단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이 브랜드는 극도로 가벼운 파운데이션과 두 가지 타입의 파우더로 구성된 디올스킨 누드 에어 컬렉션을 선보이며 한발 앞서 나갔다. 물론 새롭게 출시한 파운데이션은 당연히 리퀴드다. 아직도 리퀴드 파운데이션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도 많다. 가루가 날릴 정도로 보송한 마무리가, 피부를 한 꺼풀 덮은 듯 진한 텍스처, 잡티를 지나칠 정도로 티 나게 가리는 어설플 피부 표현은 이미 지나간 1990년대의 이야기다. 메이크업 브랜드

들은 진화했고, 퍼프, 브러시 등 메이크업 도구 역시 다양하게 출시되었으며 손가락만으로 도 피부를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텍스처는 순수하고 실기하기에, 리퀴드 파운데이션에 대한 오해는 이제 말끔히 지우길 바란다. 그리고 처음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구입하려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디올스킨 누드 에어 세럼 파운데이션 SPF 25 PA++을 추천한다. 지금까지 출시한 디올의 다양한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뷰티 마니아에게 극찬을 받은 바 있고, 품질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모든 리퀴드 파운데이션에 대한 노하우를 집약한 완결편이 바로 이 디올스킨 누드 에어 세럼 파운데이션인 것이다.

숨 쉬듯 생기 있는 마무리, 디올스킨 누드 에어

그렇다면 누드 메이크업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무엇일까? 과연 메이크업을 했을까 싶을 만큼 깃털처럼 가볍게 피부를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맨 얼굴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함정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단순히 자연스러운 누드 메이크업이 아닌 섬세한 터치와 완벽한 피부 표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글로 적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아주 쉽다. 디올스킨 누드 에어가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해도 될 만큼 완벽한 텍스처를 구현했기 때문이다. 베이스를 최대한 얇지만 완벽하게 발라 안



1 자연스럽지만 클래식하고 우아한 디올의 여성상을 모두 갖춘 나탈리 포트만의 디올스킨 누드 에어 비주얼 킷. 2 디올 메이크업 크리에이티브 & 이미지 디렉터 피터 필립스. 3 지난 2월에 열린 디올스킨 누드 에어 론칭 행사에서는 누드 메이크업의 선구자답게 텍스처와 패키지가 획기적인 신제품 세 가지를 선보였다.

피터 필립스, 디올스킨 누드 에어의 가치를 이야기하다

디올스킨 누드 에어 론칭을 기념해 세계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최근 디올 메이크업 크리에이티브 & 이미지 디렉터로 합류한 피터 필립스가 지난 2월, 서울을 찾았다. <스타일 조 선일보>는 그와 함께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와 디올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그는 “가볍고 투명한 피부 표현은 메이크업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1월, 파리 로댕 뮤지엄 가든에서 열린 디올 2015 S/S 오트 쿠튀르 쇼에서도 이 피부 표현에 주목했죠. 순수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메이크업 룩을 완성하기 위해서 디올스킨 누드 에어 세럼 파운데이션을 사용했어요”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가장 심혈을 기울인 패키지에 대해 솔직하고 멋진 설명을 더했다. “이 혁신적인 포뮬러를 담아낼 패키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부어 쓰는 병 타입이었어요. 하지만 제형이 왈락 쏟아지고 흘러내려서 사용하기 불편했지요. 게다가 스펀지를 사용하기에도 너무 가벼웠어요. 스펀지를 쓰면 제형을 다 흡수해버리니까요. 그만큼 이 제품의 성분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이에요. 공기처럼 아주 섬세해서 퍼프도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스포이트를 사용한 것은 완벽한 선택이었어요. 전혀 손떨 필요가 없으니 제품에 관한 한 최상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고 오염될 일도 없어요. 이 스포이트는 한 방울의 파운데이션만 떨어뜨릴 수 있게 고안되었어요. 많은 양을 사용할 필요 없이 단 한 방울이면 얼굴 전체에 바를 수 있을 만큼 혁신적인 포뮬러죠.” 그는 이 제품이 지금까지 사용해온 파운데이션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편리한 사용법까지 더해 명쾌하게 전달했다.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펴 바르면 되니까요. 저는 쇼를 준비할 때는 파운데이션 브러시를 사용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두드리듯 마무리하죠. 이렇게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빛이 감도는 피부를 연출할 수 있어요. 벨벳처럼 보송보송하고 매끄럽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남성도 사용할 수 있고, 습한 날씨에도 제격이에요.” 이어서 그는 이미지 디렉터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디올의 여성상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디올 레이디는 다양한 연출을 소화 해내는 여성이에요. 이번 디올스킨 누드 에어 광고 캠페인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나탈리 포트만은 굉장히 아이코닉한 미인이죠. 매우 자연스럽게 클래식하고 우아하며 완벽한 아름다움, 그 자체예요. 나만의 확고한 분위기도 있고요. 제가 디올에서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은 이미 디올 하우스가 지닌 패션 DNA와 뷰티의 연결 고리입니다. 디올 수석 디자이너 니인 라프 시몬스와 함께 작업하는 것은 정말 환상적인 일이에요. 이는 디올에도 새로운 일 테고요. 디올이 추구하는 여성상, 가치, 신념 등의 아이덴티티는 확실하게 유지하면서 최고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가 디올 레이디에 대해 이야기한 것처럼 노력해서 아름다워진 것처럼 보이고 싶은 여성은 없을 것이다. 본연의 아름다움으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드러날 때 비로소 피부에 생기가 느껴진다. 모든 여성들이 갖고 싶어 하는 이 순수한 생기, 피부 속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과 오로를 디올스킨 누드 에어가 완성해줄 것이다. 문의 080-342-9500 에디터 권영진

에서 빛이 차오르는 듯 건강한 피부를 연출하는 게 관건이기에 산소를 풍부하게 결합한 에어 버블을 담은 식물성 오일과 탁월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는 크랜베리 오일, 미네랄, 비타민까지 한 번에 담았다. 그동안 광택 있는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과정을 거친 후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발라야 광을 낼 수 있었지만, 디올스킨 누드 에어 세럼 파운데이션은 이 모든 과정을 제품 하나에 담아 단 한 방울로 이 어려운 과정을 순식간에 해결한 것. 리퀴드 파운데이션에 스포이트라는 아이디어를 적용한 것도 매우 스마트한데, 덕분에 화장대가 지저분해지거나 손등에 텍스처가 남는 등의 불편이 줄어들었다. 디올이 추구하는 우아한 사용감에 스킨케어 성분을 함유한 파운데이션이 선사하는 기능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오트 쿠튀르와 하이 패션, 프랑스 최고 브랜드가 선보이는 우아함에 대한 기준이 이 파운데이션 하나에 모두 담겨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용하면 최상의 마무리감을 선사하는 두 가지 타입의 파우더도 눈여겨볼 만하다. 디올스킨 누드 에어 루스 파우더 & 컴팩트 파우더가 바로 그것으로, 울트라-라이트 텍스처를 적용해 여러 번 덧발라도 화장이 두꺼워지거나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는다. 가벼키 브러시를 이용해 이마, 볼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원을 그리듯 터치해주고, 유분기가 많은 콧등, 콧방울 주변은 퍼프에 루스 파우더를 묻혀 한 번 더 두들기면 아주 매끄럽고 공기처럼 가벼운 피부를 완성할 수 있다.



Nudo

오직 밀라노의 공방에서 장인들의 세심한 손길로 완성하는 포멜라또의 시그니처 라인인 누도 컬렉션. 독특한 디자인을 믹스 매치할 수 있는 캔디 컬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에미사스트, 가넷, 블루 토파즈, 레몬 쿼츠 등 원석의 종류와 사이즈에 따라 2백만~3백만원대.

PH. GUIDO MOCAFICO



Nudo Diamond

기존의 누도 컬렉션에 다이아몬드의 화려함을 더했다. 최상급 원석을 다양한 컬러와 브러시, 클래식, 택시 세 가지 사이즈로 선보여 자유로운 레이아웃의 매력을 살렸다. (왼쪽 위쪽부터) 누도 다이아몬드 에미사스트 8백28만원, 누도 클래식 마티아 2백77만원, 누도 브러시 프라지오라이트 2백28만원, 누도 다이아몬드 레몬 쿼츠 8백28만원, 누도 브러시 에미사스트 2백 28만원, 누도 택시 블루 토파즈 3백68만원.

PH. GUIDO MOCAFICO



reinvent Yourself

소장하고 싶은 브랜드, 국내 기계식 워치 시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큰 공을 세운 예저 르쿨트르가 여성 워치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고귀한 예술 작품, 경이로운 시간의 추억을 남기는 예저 르쿨트르의 랑데부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칼리버 869를 장착한 랑데부 페퍼추얼 캘린더. 연도와 월, 날짜, 요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예저 르쿨트르의 기술력을 담은 랑데부 투르비옹 나잇&데이, 6시 방향에 장착한 투르비옹의 움직임이 여성들에게 기계식 시계의 매력을 선사한다. 케이스 사이즈 29mm의 가장 대중적인 랑데부 나잇&데이.

the color of Milan

유럽의 5대 주얼리 브랜드이자 이탈리아의 화려한 컬러를 담은 하이 주얼리 브랜드 포멜라또(Pomellato). 독특한 컬러 블렌드와 볼륨이 느껴지는 스톤, 사랑스러운 디자인으로 세계를 매혹시킨 포멜라또의 누도, 마미논미마, 사비야 컬렉션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m'ama non m'ama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의 마미논미마 컬렉션은 항상 출수로 레이아웃하며 사랑한다의 의미를 완성한다. 독특한 컬러 블렌드, 세심하게 가공된 최상급 스톤, 브랜드 고유의 로즈 골드 밴드로 오래도록 착용해도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왼쪽 위부터) 문스톤 1백77만원, 다이아몬드 블루 라틴 토파즈 3백18만원, 아이올라이트 1백97만원, 피아어 오발 1백77만원, 다이아 페라도트 3백18만원, 가넷 1백77만원.



Sabbia

이탈리아어로 모래밭이라는 의미의 사비야 컬렉션은 포멜라또의 시그니처인 로즈 골드 밴드에 화이트·브라운·블랙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포멜라또 공방만의 다이아몬드 파베 시팅의 장수를 보여준다. 은은하고 영롱한 모래밭의 반짝임을 담아 프라포즈 링이나 트랜디한 예를 세트로도 인가다. 2백만~7백만원대. 문의 02-3213-2260 에디터 배미진

PH. GUIDO MOCAFICO

오직 시계만을 위한 1백80여 년의 역사, 예저 르쿨트르

아마 고급 시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저 르쿨트르(Jaeger-LeCoultre) 라는 브랜드 이름을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을 비롯해 고급 시계 부티크만 모여 있는 층에 멋진 살롱을 갖춘 이 브랜드는 국내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 시장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스위스의 장인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깎아서 만든 시계 부품으로 전기 장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기계식 시계는 가격이 비교적 높지만 그 가치는 금액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다. 2000년대 초반 거의 황무지와 같았던 고급 기계식 시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예저 르쿨트르다. 왜일까? 일단 예저 르쿨트르의 워치는 보는 순간 시선을 사로잡는다. 오랜 역사와 노하우를 지닌 만큼 복잡한 시계의 기능을 아름답게 펼쳐내기 때문이다. 아무런 뛰어난 기능을 갖추었다더라도 손목에 착용할 워치라면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뛰어난 완성도가 필수적이다. 기능을 잘 아는 시계 마니아부터 시계를 처음 접해보는 초심자까지 아름다움의 가치를 아는 이라면 순식간에 매료된다. 스위스 발레 드 주의 발명가라 불릴 정도로 치열하게 기술 개발을 지속해, 지금까지 1천2백49개의 자사 무브먼트를 개발하고, 4백13여 종에 달하는 시계 제조 관련 특허를 취득하는 등 파인 워치메이킹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장인의 손길을 거친 정교한 무브먼트로 무장한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는 물론 드레스 워치까지 시계를 향한 예저 르쿨트르의 순수한 열정이 녹아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수많은 시계 애호가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2012년 예저 르쿨트르는 기계식 워치가 더

이상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파인 워치메이킹의 전통과 신비로움을 여성 워치의 세계에 진지하게 담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1833년부터 1백80여 년간 이어져온 예저 르쿨트르의 시간은 지금, 아름다운 여성 워치 컬렉션인 랑데부(Rendez-Vous)로 새롭고 드라마틱한 비전을 선보인다.



파인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담은 여성 워치, 랑데부 컬렉션

시계의 모든 부품을 제작에서부터 조립, 완성에 이르기까지 100% 인하우스 시스템으로 생산하는 매뉴팩처 브랜드, 예저 르쿨트르가 선보이는 여성 워치 컬렉션 랑데부는 첫선을 보인 이후 지금까지 여성 시계 트렌드를 바꾸어놓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하다. 클래식 워치에서 좀처럼 선보이지 않는 가독성 높은 아라비아숫자판은 물론 여성 워치에서 보기 어려운 미닛 리피터, 페퍼추얼 캘린더, 조디악 캘린더, 투르비옹과 같은 최상급의 그랑 컴플리케이션 기능을 담은 모델까지 선보이며 감탄을 자아냈다. 미드 사이즈의 라운드 케이스는 다른 고급 시계 브랜드에서 새로운 여성 모델을 선보이는 데 영향을 미쳤고, 나잇&데이 인디케이터는 여성용 기계식 시계의 아름다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특히 1930년대 아르데코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숫자는 이제 랑데부 컬렉션의 시그니처가 되었고, 가장 아름다운 요소라고 평가받고 있다. 고급 시계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피니싱도 완성도가 뛰어난데, 부드러운 곡선형 케이스 위에는 숙련된 예저 르쿨트르 워치메이커들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노하우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정교한 기묘세 장식이 돋보이는 다이얼, 머더오브필 다이얼, 켈 세팅 등 매뉴팩처가 보유한 뛰어난 밸런스의 아름다움 디자인이 신비로움을 더한다. 예저 르쿨트르는 브랜드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프렌즈를 선정해 이 워치 컬렉션을 알렸는데, 세라 가든(Sarah Gadon), 자오웨이(Zhao Wei), 다이앤 크루거(Diane Kruger)가 그 주인공이다. 그중 사진 속 여성은 최근 브랜드의 프렌즈로 선정된 세라 가든. 뉴욕을 배경으로 촬영한 화보에 등장하는 제품인 랑데부 나잇&데이는 6시 방향의 밤낮 표시 창이 특징이다. 자계 소재의 다이얼 위에 상감 세공 기법으로 6시 방향에 낮과 밤을 표시하는 반달 모양의 인디케이터가 있다. 해와 달이 번갈아 나타나며 여성용 시계에 시적인 아름다움을 더한다. 베젤과 케이스를 장식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크라운의 다이아몬드까지, 환상적인 매력도 함께 담았다. 또 인하우스 오토크메트 칼리버 967A를 탑재해 42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기계식 시계의 매력을 보여주는 세련된 랑데부 컬렉션은 소장 가치가 뛰어난 아름다운 시계, 지성미와 품격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여성들에게 멋진 선택이 되어줄 것이다. 문의 02-6905-3998 에디터 배미진

1 링크 골드 케이스에 같은 소재의 브레이슬릿을 매한 랑데부 나잇&데이 모델. 2 뉴욕을 배경으로 랑데부 나잇&데이를 착용한 예저 르쿨트르 프렌즈 세라 가든. 블루 세틴 스트랩에 폴 파베 다이아몬드 세팅 다이얼을 매치한 모델이다. 3 가장 대중적인 시계를 받고 있는 대표 모델. 링크 골드 소재 다이얼은 직경 29mm 사이즈로 실용적이면서도 멋스럽다.



Why Royal Oak?

하이엔드 위치를 대표하는 것은 물론 컴플리케이션 시계의 신화로 불리는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의 대표적인 컬렉션인 로열 오크(Royal Oak). 세계 최초의 럭셔리 스포츠 워치, 혁명적인 디자인, 그리고 현재까지 전 세계 스포츠 워치 시장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오데마 피게의 스토리에 대하여.



1972년 혁신의 태동, 모험의 시작

오데마 피게의 가장 뛰어난 작품이자 최초의 스테인리스 스틸 럭셔리 스포츠 워치로 손꼽히는 로열 오크. 전 세계 하이엔드 스포츠 워치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한 세계적인 컬렉션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를 회상할 필요가 있다. 1972년, 이 시계가 첫선을 보였을 당시에는 일본에서 개발한 전자시계의 탄생, 즉 퀴츠(quartz) 파동으로 세계 시계 시장에 일대 변동이 일어남에 따라 메카니컬 워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오일 쇼크로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암흑기에 가까운 부정적 상황 때문에 새로운 워치의 개발과 발표는 엄청난 무리수였다. 그 어떤 워치메이커나 브랜드도 새로운 하이엔드 워치를 선보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 여기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시계업계에서는 주얼리 워치와 골드 소재가 주류를 이루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는 터부시되기가 했다. 그러나 이렇게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오데마 피게는 새로운 도전과 아이디어를 위해 노력했고, 세계적인 독립 시계 디자이너 '제랄드 젤타와 함께 무모하다고 할 수 있는 실험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마침내 로엔드(low-end) 소재로 여겨지던 스테인리스 스틸을 최고급 소재로 격상시킨 '로열 오크'를 발표했다.

특히 받은 독창적인 설계 디자인

그렇다면 로열 오크(Royal Oak)의 의미는 무엇일까? 컬렉션의 명칭은 찰스 2세가 왕자 시절 망명길에 오르던 때 올리버 크롬웰의 총격을 피하기 위해 떡갈나무에 숨어 생명을 구한 일화에서 유래했다. 행운이라는 또 다른 특별한 별칭을 갖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그 정신이 영국 해군인 로열 네이비(Royal Navy)로 이어졌고 결국 로열 오크 군함의 포문과 다이빙 수트 헬멧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한 옥타곤 형태의 베젤이 탄생했다. 그리고 이 형태가 컬렉션의 상징이 된 것. 팔각형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전면부에서부터 후면부까지 육각형의 화이트 골드 스크루로 정확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한 일체형 디자인은 브랜드의 유니크한 연구 결과물이다. 또 베젤 위 나사들은 팔각형 케이스의 곡선 부분 외관과 정교하고 일정한 배열을 이루도록 장착해 브랜드의 세심함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러한 오데마 피게만의 특별한 기술력으로 탄생한 설계 방식은 그 어떤 충격에도 절대 분해되지 않는 견고함이라는 강점을 부여했다. 오데마 피게는 업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이 독창적인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까지 보유하고 있다.

뛰어난 피니싱, 그리고 정교한 다이얼로 표현하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하이엔드 브랜드가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 중 하나는 탁월한 '피니싱' 기술력이다. 그리고 오데마 피게의 뛰어난 노하우가 총집결된 컬렉션이 바로 로열 오크다. 케이스만을 위해 장장 12시간 동안 80번의 피니싱 작업을 하고, 케이스 외관 전체를 위해서는 1백62번의 폴리싱 작업을 한다. 여기에 베젤을 제작할 때는 70가지 매뉴얼 피니싱 방식이 필요하며, 1백38개에 달하는 정교한 각도를 완성하기 위해 7시간의 폴리싱 과정이 필수인 브레이슬릿은 조립까지 무려 10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피니싱 과정은 오데마 피게의 워치메이커가 오직 수공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나면 마침내 피니싱만으로 스틸 소재에 표현되는 '무지갯빛'의 놀라운 광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빛의 향연을 통해 그야말로 각 면의 디테일이 하나하나 살아나 반짝이는 보석이 없이도 화려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 하나, 로열 오크만의 순수한 아이덴티티는 다이얼 패턴이다. 이는 '프터 타피스트리' 모티브 디자인으로, 가로세로 각 0.7mm의 작은 사각형과 그물망을 연상시키는



매우 작은 홈이 동시에 겹치게 제작해 우아함을 부여함과 동시에 터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타일로 자리 잡게 했다. 그뿐 아니라 브랜드 인하우스 진문가가 타피스트리 문양을 만들기 위해 1시간 동안 공을 들이는 등 정교한 기술로 다이얼을 예술로 승화하고, 기술력을 더해 로열 오크의 상징으로 거듭났다.

앞서가는 혁신적 소재 개발

오데마 피게는 '세계 최초의 럭셔리 스포츠 컬렉션'이라는 수식어를 뛰어넘기 위해 신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초경량과 견고함을 모토로 항공 산업에서 사용하는 소재인 카본을 최초로 오프 오를로지(haute horlogerie, 고급 시계에 채택했다는 것이다. 이 소재를 시계의 작은 부품에 사용하기 위해 오데마 피게의 보석이라 불리는 '포지드 카본(forged carbon)' 제작 기술력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 이를 통해 또다시 업계 최조라는 기록을 세웠고, 여타 카본 코팅에 그치는 브랜드들과는 엄격한 차별화를 둔 셈이다. 포지드 카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처럼 가는 카본 필라멘트 한 세트를 몰드(mold) 안에 넣고, 2400°C의 고온과 1cm²당 300kg 이상의 높은 압력을 가한다. 이때 76%의 카본 섬유와 24%의 폴리아미드(강인하며 내충격성, 내약품성이 우수하고 전기적 특성과 난연성 우수)의 재질로 황금 비율을 맞춰 무게가 69.77g에 지나지 않고, 견고할 뿐 아니라 표면이 실크 느낌을 내 별도의 가공이 필요 없는 울트라라이트 케이스를 완성한다. 또 오데마 피게의 화이트 세라믹은 브랜드의 기술력이 담긴 방식으로 제작해 주목받고 있다. 특정 모델의 외관 디자인과 베젤링, 세팅 브러시, 그레인딩, 폴리싱 등 모든 제작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18개월이 기본적으로 소요된다. 상세한 제작을 위해서는 꼬박 하루 동안 1400°C의 열을 견뎌내는 과정을 거치는 이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에 비해 무게는 1/2에 불과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방지할 수 있으며 뛰어난 착용감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화이트 세라믹의 최대 강점은 내구성이 9배 강해 외부 스크래치로부터 절대적으로 강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강도가 극도로 높은 만큼 가공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케이스 가공을 하기 위해 장장 12시간이 소요되는 수고가 필요하다. 즉, 총 제작 시간의 30% 이상이 피니싱을 위

한 작업에 투자되는 점에서 워치메이커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모든 장점을 지닌 뛰어난 기능성뿐만 아니라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으로 오데마 피게만의 하이엔드 모델로 자리 잡았다.

브랜드 정통성이 담긴 다양한 컴플리케이션

오데마 피게는 '오데마 피게컴플리케이션 시계의 신화로 불리는 만큼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한 브랜드'의 노하우를 로열 오크 컬렉션으로 승화하며 늘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중력으로부터 시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한 투르비용은 물론 브랜드의 독자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늘 새로움을 추구한다. 그리고 기존의 투르비용만이 중력을 거슬러 시간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깬 신개념의 진보된 기술력이라는 평가를 받는 'AP 이스케이프먼트'를 개발했다. 이 기술력의 구체화는 18세기부터 본격화되어 10여 년의 시간이 투자되었다. 기존의 투르비용은 이스케이프먼트와 밸런스를 케이지에 담아 1분에 1회전시킴으로써 포지션 차를 없애 중력의 영향을 균일하게 한다. 하지만 수직의 위치에서는 밸런스 스프링의 텐션이 불균형해진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는 시간의 정확도와 직결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AP 이스케이프먼트'는 2개의 밸런스 스프링이 회전해 수직 방향에서도 완벽한 균형감을 이루어 최적의 상태로 정확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시계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워치메이커의 드림인 '윤회유가' 별도로 필요 없는 기술력을 담아낸 뛰어난 기술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외부 충격을 견디는 견고함, 최적의 안정성, 혁신적 디자인 등 총체적인 강점을 갖춘 'AP 이스케이프먼트'를 통해 브랜드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그리고 복잡한 기술력을 총망라해 1백41년간 이어진 오데마 피게의 정통성을 그대로 담은 작품으로 칭송받는 그랜드 컴플리케이션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반영한 모델들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SIHH에서 공개된 '로열 오크 컨셉 RD#1' 모델은 로잔공과대학과 협력해 8년간 연구한 끝에 탄생한 산물로서, 미닛 리피터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차임의 놀라운 음향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관계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문의 02-3449-5917, 02-3467-8372 [에디터 배민정](#)

Royal Oak's Representative Models

정교한 팔각형의 베젤과 8개의 스크루로 상징되는 오데마 피게의 로열 오크 컬렉션, 심플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시작해 다이아몬드와 카본, 골드까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실험적인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시계 컬렉터는 물론 남자들의 로망이 된 로열 오크의 대표 컬렉션을 소개한다.



로열 오크 스텔레톤

39mm 케이스의 작은 공간 안에서 철저히 계산된 무브먼트의 움직임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수백 개의 부품이 정확하게 운동하는 기계식 시계의 매력을 육안으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를 담고 있다.



로열 오크 투-톤

2015년 새롭게 출시된 페어 워치 중 남성 모델. 화려한 피니싱 기술력이 담긴 스테인리스 스틸과 핑크 골드 소재의 차별화된 조화를 통해 현대인의 감각적 스타일을 표현한다.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인기가 높은 추천 워치.



로열 오크 카본 컨셉 투르비용

오데마 피게의 독보적 기술력이자 브랜드의 보석 '포지드 카본'을 케이스와 무브먼트 브러시, 메인 플레이트에 사용했다. 외부 충격에 강하고 가볍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별도의 피니싱 없이 실크의 질감을 표현한 모델.



로열 오크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미닛 리피터, 영구적으로 날짜를 표시하는 퍼페추얼 캘린더, 밤과 낮을 표기하는 문페이즈 기능까지 담은 진정한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모델. 최고의 시계 기술을 집약한 컬렉션이다.





더 쾌적해진
클럽메드 발리만의 매력

joyful Bali

저항하기 힘든 다채로운 매혹을 가득 품은 섬 발리는 원래 와리(Wari)라는 산스크리트어가 변형되면서 생긴 지명인데, 현지로어로는 '집', '고향'을 의미한다. 그 이름에 걸맞게 발리는 한번 방문한 이들이 다시금 발걸음을 향하게 하는 자석 같은 매력으로 유명하다. 혹시 이 수려한 섬에 관심이 있다면 최근 훨씬 더 쾌적하게 새 단장한 클럽메드 발리를 기억할 만하다. 여행의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클럽메드의 '올-인클루시브' 서비스는 '휴가'라는 이름의 또 다른 노동을 피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과 스포츠 등 역동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지구상에는 '신들의 섬'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곳이 더러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발리아말로 그런 칭호를 누리기에 여러모로 부족함이 없는 휴양지가 아닐까 싶다. 제주도의 3배 정도 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제법 넓은 땅을 자랑하는 발리는 다채로운 매력이 공존하는 곳이다. 갑탄사를 지나내는 위용 넘치는 가얏달과 고요한 해변의 수려하기 그지없는 곡선, 신비한 느낌을 주는 열대수림, 나시 고갱(인도네시아식 뷔페)만 경험한다면 아쉬울 만큼 풍성하고 맛난 먹을거리, 질 좋은 발리 커피 원두, 그리고 올루와두, 타나투 같은 세계적인 사일 등 풍부한 문화적 자산까지 갖추고 있다. 게다가 무척이나 경쾌한 활력이 넘친다. "배우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전통이 지역 내 다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활기(vigor)를 품은 채 존속해왔다." 호주 출신의 세계적인 사회학자 밀턴 오스본 박사는 자신의 명저 <한 권에 담은 동남아시아 역사(Southeast Asia)>에서 일찌감치 이 섬의 문화적 원기를 가리켜 이렇게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유쾌하고 강렬한 활력 덕분에일까? 오랫동안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아온 발리는 국가 차원의 시대적 약재나 단발적인 사건·사고에도 깨끗하게 버텨내면서 그 특유의 원기를 유지해왔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섬 중 하나가 아니라 그냥 '발리'라는 '명함만으로도 충분하다' 싶을 만큼 의미 있는 존재감을 분출해왔다. '머스트-비지트(must-visit)'는 물론 한번 방문한 이들이 즐겨 찾는 '웬심' 두터운 휴양지로 자리매김할 법도 하다. 이처럼 꾸준한 인기 속에 보다 상업적으로 변한 면모에 마음이 살짝 상했다 하더라도, 발리의 매력은 모든 걸 용서하고 싶게 만들 만큼 강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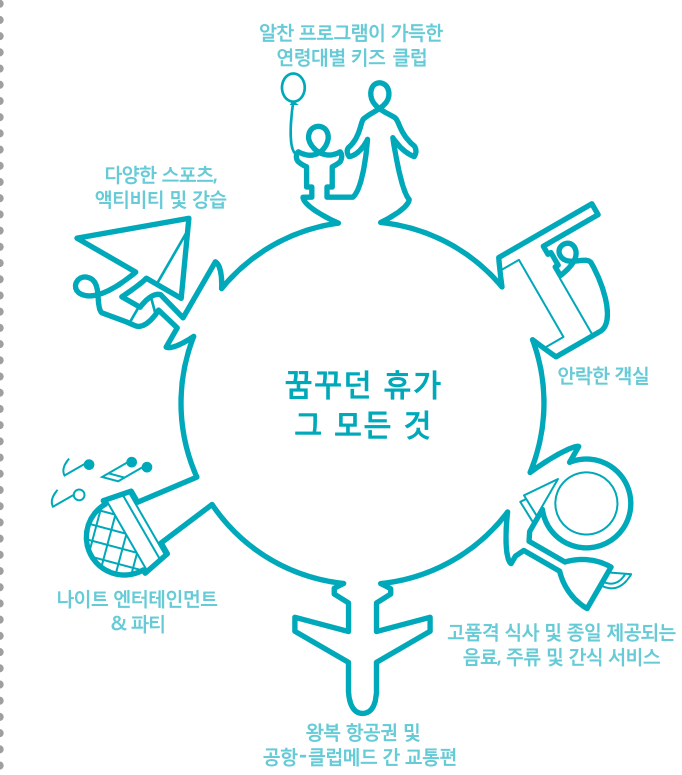
여정에 따른 온갖 번거로움을 해결해주는 '올-인클루시브' 서비스

이 넓고 아름다운 섬에서 휴식을 누릴 장소를 찾는 것은 꽤나 고민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만약 골짜기 아래에 이끼가 끼어 마치 귀찮고 바쁘다면, 특히 화끈하고 역동적인 활동을 마음껏 즐기길 원하는 젊은 싱글족이나 가족 단위 여행객이라면 클럽메드 발리를 눈여겨볼 만하다. 남동쪽 누사 두아(Nusa Dua) 해변에 있는 클럽메드 발리는 공항에서 자동차로 20~30분 정도 떨어진 거리(14km), 그리고 스미냇이나 쿠타, 짐바란 같은 인기 있는 관광 지역으로 나들이하기에도 편리한 위치에 자리 잡은 데다 넓터란 정원을 끼고 있는 친환경 리조트이기도 하다. 해변을 거닐다 보면 아자나무 무성한 정원에서 가끔 마주치는 전통 발리니즘 양식의 건축물들이 눈을 사로잡는다. 무엇보다 글로벌 브랜드인 클럽메드가 내세우는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Premium All-Inclusive)' 서비스 프로그램은 번거로운 것을 질색하는 이들에게는 상당한 가치를 제공할 듯하다. 항공권부터 시작해 공항과 리조트 간 교통편, 인락한 객실은 물론이고 먹을거리, 마사지, 각종 스포츠와 오락 활동까지 하나의 패키지 요금에 포함돼 예약 시 한 번의 결제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 번의 의사 결정을 거치면 리조트 안에서는 별도의 부담 없이 거의 무제한으로 먹고, 마시고, 놀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 리조트는 2013년 여행업계에서 명성 높은 상인 트래블러스 초이스(Traveler's Choice)에서 올-인클루시브 아시아 부문 8위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 가족 호텔 톱 6에 오르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누사 두아에 터를 잡고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다국적 손님들



All About Club Med

클럽메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의 여섯 가지 요소 왕복 항공권과 공항-리조트 간 교통편, 인락한 객실은 물론이고 전 일일 제공하는 풍성한 먹을거리, 오픈 바에서 무제한 제공하는 각종 음료와 주류, 다양한 스포츠와 오락 활동, 아이와 부모의 '원 원'을 위한 키즈 클럽, 놀림도 흥겨운 밤을 만들어주는 나이트 엔터테인먼트까지 하나의 패키지 요금에 포함된다.



꼭 알아둘 용어 클럽메드에서 만날 수 있는 상주 직원으로,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발방미인형' 리조트 전문가는 G.O(Gentle organizer), 리조트 고객은 G.M(Gentle member)으로 통한다. 2015 여름휴가 초기 예약 프로모션, 최대 40% 할인 판매 현재 한국인이 선호하는 클럽메드 베스트 7 리조트를 '상수' 최대 할인율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고 있다. 2015년 4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출발하는 일일 프로그램에 대해, 항공과 객실이 포함된 에어 패키지 요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이다. 발리, 푸켓, 말레이시아 체리팅 비치, 몰디브 카니, 오키나와 이마키가 카비라, 중국 계림, 인도네시아 빈탄 등 총 6개 리조트에 한해 진행된다. 성인 기준 1박 1만엔대(이시카비라 리조트 3박 4일 기준, 유류 할증료와 회원비 포함)부터 이용할 수 있다. 예약 기간은 4월 30일까지(선착순 5만 명 한정). 예약 문의는 클럽메드 코리아 본사 홈페이지(www.clubmed.co.kr)를 통해 온라인 예약할 수 있다. 문의 02-3452-0123

사진 제공: 클럽메드 발리, 이영진(포토그래퍼)



1. 차부터 레노베이션 작업을 시작한 클럽메드 발리에 새로 등장한 젠 풀(Zen Pool). 조용히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성인용 풀로, 인기 명소이다. 2. 사내 주요 관망자이자 기쁨을 쏙 빼앗아 버리는 누사 두아 해변에 자리 잡은 클럽메드 발리의 전경. 3. 프랑스 디자이너 마크 허트리치가 전통과 현대적인 감성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한 새로운 달력스 룸 내부. 4. 가족 공간인 스플래시 파크(Splash Park). 이런 공간이 풍성한 것도 클럽메드 발리에 새롭게 등장한 미덕으로 꼽힌다. 5. 문화적 자산이 풍부한 발리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메인 로비. 6, 7. 클럽메드의 자랑인 스노클링, 윈드서핑 같은 해양 스포츠는 물론이고 테니스, 골프, 양궁, 공중그네 등 다양한 랜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뿐더러 원하면 무료 강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장이다. 8. 부모가 자를 맡기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하는 키즈 클럽(만 2~3세). 프리 클럽은 유료로만 4~23개월 아이를 위한 유료 베이비 클럽도 새로 생겼다. 9. 단종 요리부터 해산물 스페셜티 코스 다-까지 맛볼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의 프리미엄 레스토랑 '덱(The Deck)'. 새로운 디자인 장소로 인기가 많아 예약이 필수다. 10.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메인 풀.

을 맞이해온 클럽메드 발리는 지난해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레노베이션을 시작했는데, 이 작업을 이끈 프랑스 디자이너 마크 허트리치는 전통과 현대적인 감성이 어우러지는 '조화(harmony)'의 디자인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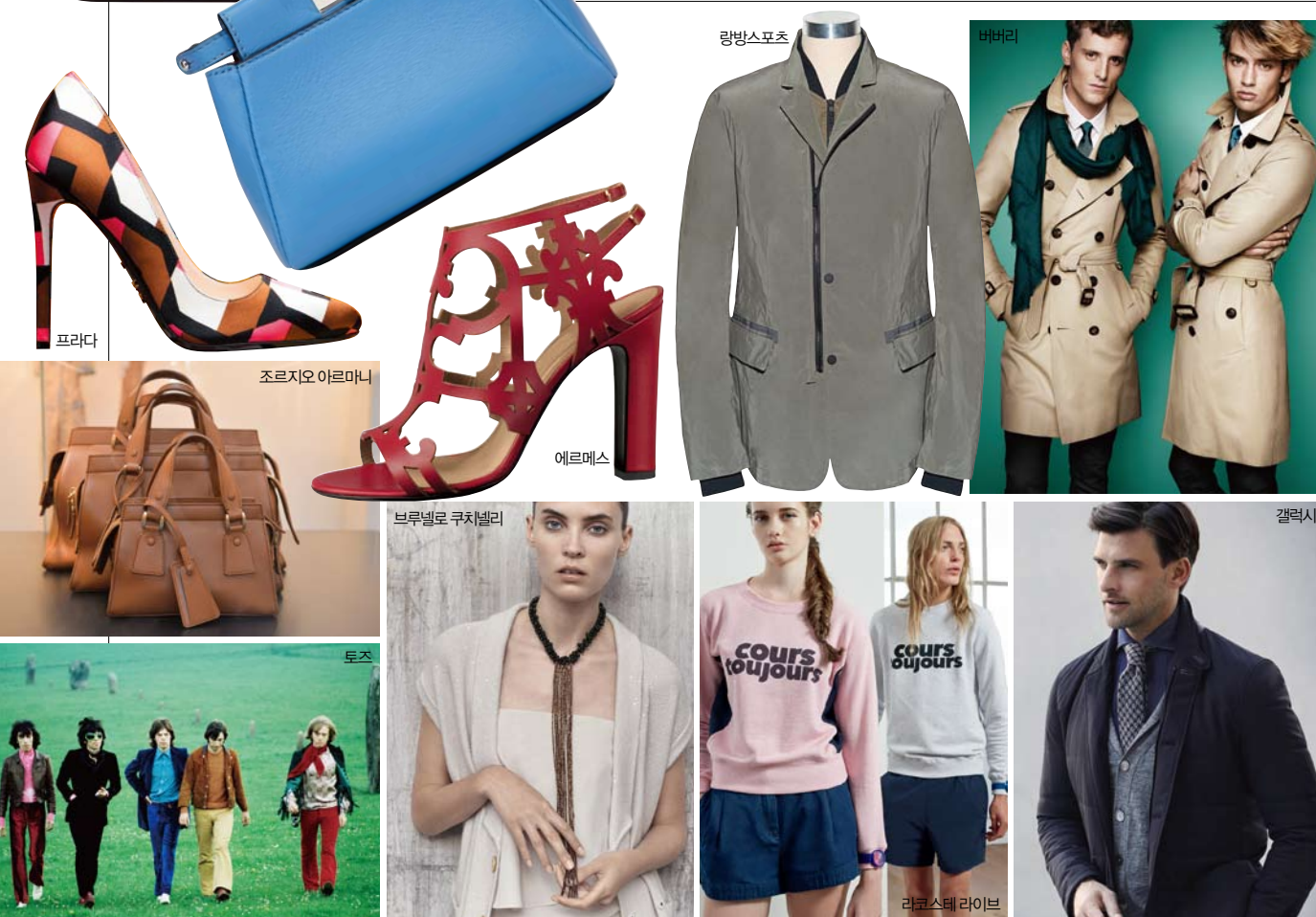
가족 지향적 리조트, 레노베이션 작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되다

전반적으로 말끔하게 업그레이드된 시설과 분위기 속에서 가족 여행객들이 두 팔 벌려 반길 만한 요소가 먼저 눈에 띈다. 본래 클럽메드가 가족 여행객에게 안성맞춤인 매력 요소 중 하나가 부모가 자녀를 맡겨놓고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는 '키즈 클럽'이다. 각자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국적의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경험은 아이들에게도 색다르게 다가온다. 발리 리조트에서는 주니어 클럽(만 11~17세), 미니 클럽(만 4~10세)은 무료로, 프리 클럽(만 2~3세)은 유료로 운영하는데, 여기에 만 4~23개월 아이를 위한 유료 베이비 클럽을 새로 선보였다. 또 새 단장을 거친 일부 달력스 룸 중 거실이 있는 가족용 달력스 룸을 마련했으며, 어린이 전용 시설이 포함된 '패밀리 존(Family Zone)'도 만드는 등 가족 여행객에 대한 배려가 더욱 세심해졌다. 운치 있는 성인용 풀장 '젠 풀(Zen Pool)'도 빼놓을 수 없다. 수영선을 바라보거나 풀장을 따라 나무가 늘어선 정원을 마주하며 호젓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젠 풀'은 클럽메드 발리가 여유를 갈망하는 어른들에게 선사하는 새로운 선물이다. 아이가 있더라도 키즈 클럽에 맡기고 유아적 수업을 즐길 수도, 선베드에 길게 누워 책을 읽다가 낮잠을 청할 수도 있는 평온한 '힐링 공간'이라 인기가 꽤 높다. "한잔하시겠어요?" 마침 좀 후딱지근하다 싶은 순간, 발리인 특유의 환한 미소를 띤 직원이 다가와 차가운 음료를 원하나고 묻는다. 그리고 보니, 이곳에서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음료를 훌쩍겨릴 수 있는 서비스도 잊지 말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식도락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도 반갑다. 여유가 느껴지는 디자인을 입힌 프리미엄 레스토랑 '덱(The Deck)'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클럽메드 발리의 뷔페식 메인 레스토랑과 달리 앉은 자리에서 단종 요리부터 해산물 스페셜티 코스 디너까지(추가 비용은 없지만 사전 예약은 필수), 꽤나 다채로운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특히 이 레스토랑은 늦잠을 자더라도 느긋하게 '아침'을 즐길 수 있는 데다, 오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고메이바(gourmet bar)도 따로 운영해 일종의 '올에이 데이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경쾌한 발리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활기, 둘째기리면 서럽다

"클럽메드가 목표하는 바는 삶의 행복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지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클럽메드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하워드 쿤켈이 거듭 강조한 클럽메드의 근간이 되는 '행복 철학'은 활기와 열정이 넘치는 전반적인 리조트의 분위기와 잘 맞아떨어진다. 그 중심에는 클럽메드의 상주 직원으로 '발방미인형' 리조트 전문가로 통하는 G.O(Gentle organizer)가 있다. '어쩌면 이렇게 다재다능할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재주와 끼가 많은 이들은 낮에는 공중그네(서커스), 양궁, 테니스, 탁구, 골프 같은 랜드 스포츠는 물론이고 윈드서핑, 스노클링, 수상스키 등 클럽메드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해양 스포츠 강습자로 나서며, 밤에는 신나는 공연을 책임지는 '나이트 엔터테이너' 역할을 하기도 한다. 덕분에 클럽메드에서는 밤의 정미가 드러나더라도 심심할 새가 없다. 정열이 넘치는 G.O가 주도하는 다채로운 공연과 코미디 쇼, 남녀노소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댄스 타임이 새벽까지 이어진다. 현재 클럽메드 발리에도 1백여 명의 다국적 G.O가 전방위적으로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휴가를 선사하려 애쓰고 있다. 클럽메드를 총괄 운영하는 수장으로 G.O의 사령관인 총장(chief de village) 역시, 아니 오히려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흥을 돋우며 웃음을 선사하는 거리낌 없는 모습을 보노라면 어느새 무장 해제되면서 리조트 특유의 활기찬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물론 굳이 원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그래도 클럽메드를 찾는 이라면 누구나 기본 좋게 내리는 '선택이 분명히 있다. 그건 바로 백사장에 위치한 비치 바(beach bar)에 들러 상큼한 카테일이나 주스를 들이켜며 상쾌한 공기와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는 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행복을 가득 담고 있으니 이만한 디럭스 음료가 드물지 않을 거 같다. **이영진** **에디터** **고성민** **발리 현지 취재**

SHOWROOM



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착용감이 편안한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542-6622

랑방스포츠 라이트 자켓 럭셔리 사트웨어 브랜드 랑방스포츠에서 '라이트 자켓'을 제안한다. 프리미엄 소재와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실용성을 높인 라이트 자켓은 패널과 시보리 디테일로 포인트를 주고, 플랩 포켓 위 봉제선이 보이지 않도록 웰딩 처리해 완성했다. 현대백화점 앙구정 본점과 롯데백화점 본점 매장 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38-6252

바버리 헤리티지 트렌치코트 바버리가 1백59년 전통을 대표하는 아이템인 트렌치코트를 재해석해 선보인다. 바버리 트렌치코트는 영국의 캐슬퍼드에서 전문가들의 전통적인 기술과 최신 기술을 결합해 3주간의 공정 기간을 거쳐 완성된다. 무려 1백 단계를 넘는 장인들의 정성스런 수작업을 통해 제작되는 트렌치코트는 슬림, 모던, 클래식의 3가지 핏과 하니, 스톤, 블랙의 3가지 색상으로 전국 바버리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85-6536

브루넬로 쿠치넬리 다이아몬드 이펙트 더블-브레스티드 롱 카디건 브루넬로 쿠치넬리에서 우아한 스타일의 다이아몬드 이펙트 더블-브레스티드 롱 카디건을 선보인다. 가볍고 따뜻해 환절기에 활용도 높은 아이템으로, 움직임에 따라 은은하게 반짝이는 시린 장식이 포인트다. 여겨 더블브레스트 디테일로 무게감을 주어 시크함을 더했다. 허모를 덮는 가장자리와 루스한 실루엣으로 캐주얼과 포멀한 스타일 등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3448-2931

리코스테 라이브 캐주얼 컬렉션 리코스테 라이브가 유니크한 그래픽과 패턴이 돋보이는 캐주얼 컬렉션을 선보인다. 해안 풍경에서 영감을 받은 유니크한 산호 패턴과 경쾌하고 재미있는 레터링 그래픽을 담은 번디나 패턴까지 다양한 아이템의 이번 컬렉션은 트렌디하면서도 우트 있어 스타일리시한 스포링 룩을 연출할 수 있다. 특히 'Cours Toujours'라는 글자가 쓰인 스웨트셔츠는 파스텔컬러와 베이지, 그레이까지 다양하며 유니섹스 디자인으로 출시되어 커플 룩으로도 연출 가능하다. 문의 02-542-9101

갤럭시 사르토리얼 테크 갤럭시에서 실용적이면서도 편안한 '사르토리얼 테크'를 선보인다. 갤럭시의 세심한 테일러드 기술과 고기능의 하이테크 소재, 기능성 아웃도어 봉제 기술로 탄생한 이 제품은 울과 실크 혼방의 소재에 테일러드 인체 패턴을 접목했다. 특히 봉제선에 방수 테이프를 부착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심 실링 공법을 적용해 완벽하게 가까운 방수 기능을 자랑한다. 문의 1599-0007

FASHION

펜디 마이크로 피카부 백 펜디가 피카부의 마이크로 버전인 마이크로 피카부 백을 선보인다. 2015 S/S 컬렉션에 처음 등장해 주목을 받은 마이크로 피카부 백은 이번 시즌 마스트 해브 및 백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스트랩은 탈착이 가능하며, 숄더 스트랩과 크로스 스트랩 2가지로 연출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블랙·핑크·아이스 블루·옐로·푸르시아 핑크 컬러로 출시된다. 문의 02-2056-9023

프라다 MTO 슈즈 프로젝트 프라다에서 MTO 슈즈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오프로, 펌프스, 샌들 스타일의 슈즈를 다양하게 오디할 수 있는 이번 MTO 슈즈 프로젝트는 스웨이드, 새틴, 사피아노, 페이턴트, 파이론 등 다양한 소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프라다의 아이코닉한 패턴인 옥타곤, 릴리, 롤립 프린트 등이 새겨진 사피아노 소재와 프라다의 실크 소재인 두레세 새틴 소재로 제작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뿐만 아니라 가죽 밑창은 블랙, 베이지, 라이트 블루 중 원하는 컬러로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니셜을 장식할 수 있다. 슈즈의 제작기간은 주문일로부터 60일 가량 소요되며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대구점, 갤러리백화점 타임월드점에서만 만날 수 있어 특별함을 더한다. 문의 02-3218-5331

조르지오 아르마니 르 색 11 조르지오 아르마니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은 '르 색 11'을 출시한다. '르 색 11'은 브랜드 창립 40주년을 맞아 디자이너의 생일이자 말라노 본사의 주소이기도 한 숫자 '11'의 의미를 담아 선보이는 백 컬렉션이다. 부드러운 이탈리아 맨 가죽에 2개의 핸들과 골드 플래티넘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어 클래식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르 색 11은 전 세계의 한정된 매장에서 4월 출시되며, 국내에서는 2016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2-549-3355

토즈 스타다스트 전시회 개최 이미 다양한 전시를 후원해온 바 있는 토즈는 현대 시인의 거장 데이비드 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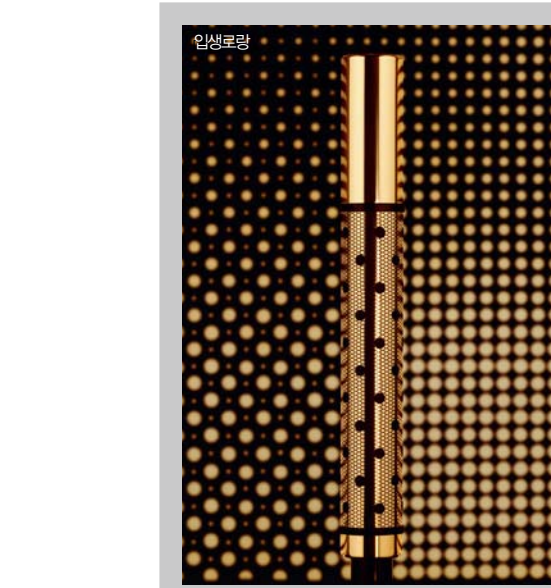
미즈노 JPX850 드라이버 미즈노에서 비거리 스피드 JPX850 드라이버를 출시한다. 웨이브 밸런스를 자유자재로 통해 비거리를 신장시키는 적정 스프링을 제공하는 JPX850 드라이버는 빠른 대로 페이드 구질을 제공할 수 있는 파스트 트랙 시스템을 탑재했다. 여기에 미즈노만의 하모닉 임팩트 기술로 경쾌한 타구음을 제공한다. 특히 골퍼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87가지 로프트 각 조정이 가능한 쿼드러블 적용한 것이 눈에 띈다. 문의 02-3143-3358

캐논 EOS M3 캐논은 하이엔드 미러리스 카메라 EOS M3를 출시한다. 캐논 미러리스 카메라 중 최초로 하이브리드 CMOS AF III 기술을 적용해 촬영 시 더욱 빨라진 AF 성능을 발휘한다. 여겨 2천4백20만 화소의 신형 CMOS 센서와 다지 6 영상 처리 엔진을 탑재해 촬영 성능 또한 향상되었다. 특히 NFC 기능을 포함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사진을 스마트 기기들 통해 온라인상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

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한 손으로 들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매끄러운 곡면 디자인도 반영했다. 문의 1588-8133

발렌타인 시그니처 디스틸러 리미티드 에디션 컬렉션 발렌타인 인이 발렌타인 17 글렌비기 탄생 2백주년 스페셜 에디션, 스카파 에디션, 밀포드 에디션, 글렌터커스 에디션으로 구성된 발렌타인 시그니처 디스틸러 리미티드 에디션 컬렉션을 선보인다. 발렌타인 마스터 블렌더가 특별히 블렌딩한 이번 컬렉션은 47가지 주조물 트윅스키와 40여 가지의 위스키 원액을 블렌딩해 부드럽고 풍부한 풍미를 느낄 수 있으며 리미티드만의 소장가치를 자랑한다. 문의 02-3466-5700

50 • STYLE CHOSUN 2015.04



인생로랑 두시 에콜라 락 레질 에디션 인생로랑에서 매직 펜 '두시 에콜라 락 레질 에디션'을 새롭게 출시한다. 인생로랑은 매년 헤리티지로부터 영감을 받은 두시 에콜라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이고 있는데 올해 출시되는 락 레질 에디션은 생로랑 하우스의 블랙 도트 레이스로부터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보일 듯 말 듯한 블랙 도트 레이스를 입은 골드빛 케이스가 매력적이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의 080-342-9500

라프레리 셸라 스위스 아이스 크리스탈 컬렉션 라프레리에서 환절기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셸라 스위스 아이스 크리스탈 컬렉션'을 선보인다. 강한 생진력을 갖춘 퍼플 삭스프리지, 솔다벨라 알파, 스위스 스노우 알파처럼 귀한 성분이 함유된 셸라 스위스 아이스 크리스탈 컬렉션은 피부에 풍부한 수분을 공급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준다. 끈적임 없이 흡수되어 자연스러운 윤기를 주는 페이스 오일부터 고보습으로 강력한 효과를 지닌 아이크림, 공기처럼 가벼운 질감의 모이스처라이저 인 에센스, 피부에 강력한 수분 배양을 쉼워주는 크림으로 구성된다. 문의 080-511-6626

디올 디올스킨 누드 에어 세럼 파운데이션과 누드 에어 루스 파우더 & 컴팩트 파우더 디올에서 신제품 '디올스킨 누드 에어 세럼 파운데이션'과 '누드 에어 루스 파우더 & 컴팩트 파우더'를 출시한다. 가벼운 텍스처가 돋보이는 파운데이션은 소량으로도 밸런스를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문의 080-023-3333

메르세데스-벤츠 여성 향수 로즈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신제품 여성 향수 '로즈'를 출시한다. 사랑스러움을 담은 로즈는 향긋한 장미와 달콤한 과일 향이 어우러져 여성미를 극대화한다. 장미, 자몽, 블랙 커넬을 시작으로 풍부한 로즈우드와 목련 향이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어 시더우드와 마스크의 은은한 향으로 마무리된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장미 향을 그대로 표현한 로즈 핑크 컬러의 보틀 디자인이 돋보인다. 문의 02-3443-5050

포엘라도 베이비 컬렉션 포엘라도에서 베이비 컬렉션을 소개한다. 브라운 다이아몬드가 총합이 수놓아진 로즈 골드 밴드와 순도 높은 최고급 칼라 스톤이 조화를 이룬 베이비 컬렉션은 특히 예비 신부들에게 사랑받는 라인이다. 프라퍼프 링뿐만 아니라 레이어드링에 연출하면 포인트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문의 02-3213-2260



티파니 2015 티파니 블루 북 컬렉션 제8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한 여배우들이 '2015 티파니 블루 북 컬렉션'을 착용해 주목을 끌었다. 티파니의 블루 북 컬렉션은 1년에 한 번 전 세계 VVIP를 대상으로 선보이는 최상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 리드 디스펜서와 아이리얼 브레이슬릿, 블루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웨이브 링, 다이아몬드 클러스터 링을 착용했고, 케이트 블란쳇은 터라이즈, 아이리얼, 다이아몬드가 조화로운 네크리스를 착용해 우아함을 뽐냈다. 또 엠마 스톤은 정교한 로즈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유연한 디자인의 컷과 에메랄드 컷 스타트 이어링을 착용해 신비로움을 자아냈다. 문의 02-547-9488

에거 르콜트르 마스터 컴퍼서스 익스트림 램 2 블루 버전 에거 르콜트르가 마스터 컴퍼서스 익스트림 램 2 블루 버전을 공개했다. 지난 9월의 미궁계 모델에 뒤 이어 블루 컬러를 포인트 삼아 남성적인 매력에 돋보인다. 첨단 블랙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 베젤의 티타늄 케이스 안에 기계식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탑재했다. 뿐만 아니라 크라운의 기능 섀플터를 통합시켰으며 케이스 측면에는 슬라이드스 매뉴얼 스톱 세컨드 기능을 갖추었다. 특히 크로노그래프의 분을 디지털 방식으로 보여주며 디지털 카운터와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눈에 띈다. 국내에서는 4월 3일부터 12일까지 주요 부티크에서

열리는 에거 르콜트르 노블티 여러ուն 더 월드 워치 페어를 통해 공개한다. 문의 02-6905-3998

까르띠에 골레 드 까르띠에 까르띠에는 골레 드 까르띠에를 선보인다. 원형 베젤과 매끄러운 라인에 특징인 골레 드 까르띠에는 심플한 디자인에 사파이어 장식이 돋보인다. 특히 사이즈가 커 조작하기 쉬우며, 특수 고안한 레버 시스템의 오토매틱 메카니즘으로 내구성을 높였다. 재빠른 웨이브로 장시간 무브먼트는 42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문의 1566-7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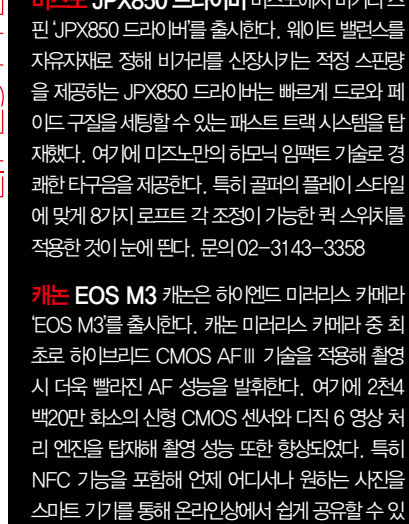
프레드릭 콘스탄트 레이디 슬림 라인 문메이즈 프레드릭 콘스탄트에서 슬림한 디자인의 세련미가 돋보이는 레이디 슬림 라인 문메이즈 워치를 새롭게 선보인다. 레이디 슬림 라인 문메이즈는 다이아몬드로 채워진 인덱스와 마더오브펄을 사용해 여성스러움과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다. 또 톤 다운된 블루 컬러와 소가죽 스트랩, 실버 케이스의 조화는 우아한 분위기를 풍긴다. 특히 여성 손목에 가장 적합한 직경 30mm 케이스와 슬림한 디자인은 뛰어난 착용감을 선사하며 손목 위에 우아함을 선사한다. 문의 02-310-1970

한 디자인은 뛰어난 착용감을 선사하며 손목 위에 우아함을 선사한다. 문의 02-310-1970

몽블랑 보행 패퍼추얼 캘린더 주얼리 몽블랑은 보행 여성용 시계의 최상급 라인인 보행 패퍼추얼 캘린더 주얼리를 제안한다. 정교한 워치메이킹과 주얼리가 조화를 이뤄 여성미를 배가시킨 보행 패퍼추얼 캘린더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너머로 보이는 레드 골드 케이스에 디자인된 셀프아인딩 칼리버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인디케이션은 은장 문양의 다이얼에 조화롭게 배치되어 한눈에 들어오며 무브먼트를 수동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으며 판리하다. 문의 02-2118-6053



LIFESTYLE



50 • STYLE CHOSUN 2015.04